



Central New Jersey Guide

# 중부뉴저지가이드

뉴저지 중부지역 한인들을 위한 생활안내

**문유미부동산** Weichert Realtors  
 NJAR Circle of Excellence Award 2002-2005, 2008

**프린스턴 지역 전문**

**Weichert Realtors** Cell: 609.865.3644  
 www.YoomiMoon.com

E-Mail: Yoomi@YoomiMoon.com

53 Princeton-Hightstown Rd, Princeton Junction, NJ 08850

Dr. Hee Nam Park D.C **척추신경전문의**  
**박희남 통증병원**

• 교통사고 및 직장상해 • 척추측만증 • 디스크 감압치료

TEL: 732.342.7575

85 Raritan Ave. Suite 430, Highland Park, NJ 08904

www.hkimacupuncture.com

**김향숙 한의원**  
 ACUPUNCTURE & HERBS

732-729-1075

Fort Lee Office 201.224.3000 Metuchen Office 732.729.1075

# 6 2013 월호

전통 한국음식의 자존심 명가의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웬빙식**

**푸드명가** Food Master

**No! 조미료**

- 고급잔치음식
- 밑반찬
- 도시락 전문
- Special Sushi Roll
- 각종 떡 취급

1636 Lincoln Highway, Edison (732)354-4217

**GLORY music**

음악원 • 악기점

- 뮤직레슨 (5세부터 장년)
- 악기판매 및 대여
- 악기수리
- 피아노 조율 및 수리 (경력 20년-공인 조율사)

2056 Lincoln Hwy, Edison NJ, 08817 732.287.6677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인의 마음입니다."

"카이로프랙틱과 통증의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인병원** 통증 재활 한방

교통사고 • 물리치료 • 한방치료 • 통증의학 • 카이로프랙틱

1681 Route 27 Unit 3 Edison, NJ 08817 T. 732.287.1990

**HYUNDAI Circle**

www.circlehyundai.com

Tel. 732.741.3130

641 Shrewsbury Ave., Shrewsbury, NJ 07702

**헤럴드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 객주나 디스크에 관련된 사고 / 공사현장 사고  
 직장내 사고 / 직장 부러진 경우 / 빌딩로 희생양이 되신 사고  
 각종 상해 / 알코올인 경우 / 슈퍼마켓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 / 사망 / 개인택시 관련 사고 / 기계팔뚝으로 인한 사고

오랜경험의 변호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말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877-249-4600/732-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SUMMER 2013  
**STAND OUT**  
**MEK REVIEW**

NEW JERSEY'S BEST ENRICHMENT PROGRAMS  
 CRITICAL READING • MATH • WRITING • SAT

Palisades Park & Edison Campus  
 July 8th to August 23rd  
 Call (855) 346-1410 or visit mekreview.com

**Sticker is**

www.stickeris.com

- Mobile Phone
- Tablet
- Beats Headphones

Sticker is 는 케이스가 아닌 부착방식의 디자인 스티커입니다.

732.469.4740

**Design & Printing Inc.**

428 Lincoln Blvd. Middlesex, NJ 08846

**EDISON DENTAL 27** 최상의 교정시술을 경험하세요

**마이클 정** 교정치과 전문의  
 Michael J. Chung, D.D.S., M.S.

Tel. 732.906.8883

2 Lincoln Hwy, Suite 400  
 (Levinson Plaza on Route 27) Edison, NJ 08820

# BIG SAVINGS<sup>🍃</sup>

## FOR SMART SHOPPERS LIKE YOU!

오늘부터 H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소리나게 장보세요

Smart card shoppers know how to get extra discounts. They also get special in-store savings and special entry into our unique sweepstakes throughout the year. Smart card shoppers also know you get a \$10 gift certificate for every \$1000 purchased.

"스마트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아직 회원가입 안하셨어요? 스마트카드 회원이 되시면 매장 특별 세일은 물론, 특별 경품행사 참여기회에, 적립된 포인트로 상품권까지! 스마트카드 고객만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카드 회원이 되세요!

### What is Smart Card Zone?

Smart Card zone is an easy access to check your smart card current points (balance), download smart card application, and check the latest special discount items for members. Be smart, shop at Hmart with your smart card!



## NJ HMART STORES

Ridgefield	321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3-9600	Fort Lee	112 Linwood Plaza #130, Fort Lee, NJ 07024	201-947-7800
Englewood	25 Lafayette Ave., Englewood, NJ 07631	201-871-8822	Edison	1761 Rt. 27(Lincoln Hwy.), Edison, NJ 08817	732-339-1530
Little Ferry	260 Bergen Tpk, Little Ferry, NJ 07643	201-814-0400	Hmart Fresh	1379 16th st., Fort Lee, NJ 07024	201-944-9009
Cherry Hill	1720 Rt. 70 E., Cherry Hill, NJ 08003	856-489-4611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 헤롤드기어 변호사

##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오랜경험의 변호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국말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된 사고 / 공사현장 사고  
직장내 사고 / 뼈가 부러진 경우 / 범직로 희생양이 되신 사고  
각종 상해 / 탈골인 경우 / 슈퍼마켓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 / 사망 / 개한테 물린 사고 / 기계잘못으로 인한 사고

상담은 무료이며 이기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다치신 분들은 집과 병원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역시 돈은 받지 않습니다.)

1-877-249-4600/732-249-4600 (한국어문의 Miss Park) [ka@haroldgerlaw.com](mailto:ka@haroldgerlaw.com)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 앤드류 박변호사 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앤드류 박변호사 장학재단에서는 2013년 제 1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뉴욕, 뉴저지, CT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2013년 대학 입학 예정 및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1인당 \$3000달러를 총24,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 신청자격은 요건은 자기소개서 및 사진 1매, 추천인 2인, 1년간 학업성적 및 재학 증명서, 대학교 합격 통지서 1부, 에세이(미래 한인 사회를 위한 나의 생각?또는 현재 한인사회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등이며, 앤드류 박 변호사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커뮤니티에 봉사 할 자세가 되어있는 학생을 찾고 있어 성적도 중요하지만 에세이 또한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본인이 직접 선발하지 않고 11명의 장학 위원들에게 선발을 맡겼다고" 말했다.

장학생 선발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917)710-8659 또는 hy@andrewparkpc.com 으로 하면 된다.

모집마감은 6월 22일 (토)



### 앤드류 박변호사 한미총효회에 후원금 5천달러 기부



앤드류 박 변호사가 2일 한미총효회에 후원금 5천달러를 전달했다.

이 성금은 17일(금)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한미 총효회 주최 제13회 효자효부시상식 및 경로대잔치에 쓰여진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사상을 이어가는 좋은 행사가 비용 문제로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 며 “좋은 전통이 한인 사회에 잘 계승 발전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에 임형빈 회장은 “매년 행사 경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박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며 박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올해 효자·효부상 수상자는 다음 주 발표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인의 마음입니다.”

“카이로프랙틱과 통증의학과를 신설해서 운영합니다”



교통사고 • 물리치료 • 한방치료 • 통증의학 • 카이로프랙틱

뉴저지(에디슨) : 732-287-1990  
1581 Route 27 Unit 3,  
Edison, NJ 08817

북부 뉴저지 : 201-894-5451  
464 Hudson Terrace, #204  
Englewood Cliffs, NJ 07632

뉴욕 : 718-317-9801  
3453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2

#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강력한 변호사 앤드류 박

**교통사고 전문  
최대보상**

**같은사고  
다른결과!!**



**24시간 무료 상담  
1-855-PARK-911  
1-855-7275-911**

## 718 • 846 • 1100

\*앤드류 박 변호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복지개선과 한인 1·5, 2세대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andrewparkpc.com](http://www.andrewparkpc.com)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수혜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장학금은 본 장학재단의 장학위원 (11명)들이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 수여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급액**

**\$24,000.00**

\*\$3,000씩 8명에게 지급

**신청자격**

1. 2013년 대학 진학 예정자 (12학년) 및 대학 재학생
2. 기타 유학생으로 1에 해당하는자
3. 지역 : 뉴욕, 뉴저지, CT

**구비서류**

1. 자기소개서, 사진 1매
2. 추천서 (2인)
3. 최근 1년간 학업 성적 및 재학증명서 (원본)
4. 대학교 합격 통지서 1부
5. 에세이 : 미래 한인 사회를 위한 나의 계획? 또는, 현재 한인사회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문의**

연락처 : (917) 710-8659  
e-mail : [hy@andrewparkpc.com](mailto:hy@andrewparkpc.com)

**접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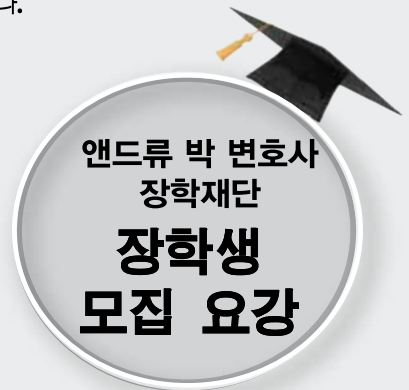
e-mail : [hy@andrewparkpc.com](mailto:hy@andrewparkpc.com) 또는  
주 소 : Law Office of Andrew Park, P.C.  
450 7th Ave Suite #1805  
New York, NY 10123

**신청기간**

2013년 5월 20일 (월) - 6월 22일 (토)

**장학생 명단 발표**

2013년 7월 26일 예정 (추후 통보)



# 기억을 내려 놓은 어른들

가장 불행한 결말이라는 치매에 걸린 노부모를 보고 괴로워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 황당해 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챙피하기도 할 노릇이다. 평생 자식들을 기르시고 챙기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치매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치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왜 생기는지는 모르나 뇌가 서서히 쪼그라들면서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으로 뇌에서 몸으로 전달하는 회로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론 배 부른 줄 모르고 끝없이 먹기도 하고 감정 절제가 안되거나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잘 못알아 듣기도 한다. 또한 시각 정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환각이나 환청 현상이 나타나 헛것을 보고 듣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환자에게는 실제상황인 것이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기억들을 내려놓고 지나온 세월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동안 가족들은 점점 더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어느 때님은 의료기관 계통의 일을 해서인지 잘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족 얼굴을 알아봤으면 하고 소원했다. 그리고 매번 방문 때마다 딸 이름과 날짜를 반복 연습 시키는 일을 계속했다. 노인병원에 맡기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환자 때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어 하고 아픈 부모님과 매일 부딪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지는 것보다 치매 걸린 환자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듯 싶다. 집이나 시설이냐는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보고 우습지 않은 것을 같이 웃어 드리는 것이다. 병은 병대로 있는 것이고 살아온 삶도 그대로인 하나의 인격체로 존경 받아야 할 본인 것이다. 지나온 세월은 기억 못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남은 능력을 매일 훈련하면서 치매를 지연시키는 수밖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치매다. 손과 발과 눈을 쓰며 대뇌를 움직여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 특히 홀로 집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혹 위험하니까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거나 이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할수록 환자는 더욱 이 상황이 헛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것은 엄연한 방관이고 무책임한 행위 일수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양로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그중 하나가 원예치료이다. 흙에 무언가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을 하면서 손과 발을 움직인다. 또 매일 아침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고는 두뇌 운동을 위해 수수께끼나 동요 외워 부르기를 한다. 예전에 좋아하시던 흘러간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치매환자들이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것이 음악과 감정이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한가로이 크레용으로 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색칠을 한다. 어떤 날은 목사님이나 신부님과 예배를 드린다. 한 달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야외로 나가기도 하고 쇼핑을 즐기기도 한다. 주말이면 방문한 손주들과 뒷뜰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떡을 드신다. 이 모든 것이 치매와 함께 당당히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이다.

이런 환자들이 널싱홈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24시간 간호사의 케어를 받고 의사 방문도 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다 받는다. 밤에 가끔 잠이 안오면 직원과 밤새 TV를 시청 하시기도 하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생활 하다 보면 예전 보다 증상이 좋아지시기도 한다. 치매를 불치의 병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마지막 삶을 인간답게 누리며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기를 매일 기대한다.

은혜가든 디렉터 캐시 박

좋은이웃과 정성스런 도우미가 함께 하는 곳



# 은혜가든

양로원  
요양원

“요양원, 고향집처럼 편안한 곳으로 오세요”

♥ 뉴욕, 뉴저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각종 보험    ♥ 장/단기 요양및 병원 퇴원 후 물리치료 프로그램

중부NJ: 901 Ernston Rd. South Amboy, NJ 08879 (732)672-1684 (한국어)  
북부NJ: 100 Mc Clellan Street, Norwood, NJ 07648 (201)768-5778

# 저렴한 보험료와 최상의 서비스

## 뉴저지 운전자만을 위한 자동차보험



**High Point**  
Auto Insurance  
A Plymouth Rock Managed Company

**낮은 보험료와 최고의 가치 그리고  
다양한 할인혜택까지...**

- Advance Shoper Discount
- New Car Replacement
- Multi-Policy Discount
- Paid in Full Discount
- Homeowners' Discount
- And more...

**무료 보험료 산정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Kenny Kim - Prudential Financial Professional**

515 Plainfield Ave #103, Edison, NJ 08817

Office: 732-491-4724

Cell Phone: 732-841-2086

Prudential distributes auto and other property and casualty products that are offered and underwritten by High Point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y.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Newark, NJ and High Point are not affiliated companies.

**0158093-00003-00**

# 전 연 찬 종합보험

YUN CHAN CHUN AGENCY

개인 자동차보험

**PROGRESSIVE®**

상업용 자동차보험

*"The right coverage at the right price."*

**Discount Benefit**

- Advance Quote
- Multi Cars
- Choose full Coverage
- Home Owner
- Paid in full
- Safe Driver and more

- 사업체 보험
- 건물 보험
- 주택 보험
- 종업원 상해 보험 (workers comp)
- 의료 보험
- 생명 보험

Progressive does not offer Health or Life insurance.

**Tel. 732.767.6601 / Fax. 732.767.1022**  
35 Bridge St. Bridgepointe, Rt.27, Metuchen, NJ 08840



한국어/영어 완벽구사, 무료상담

조재형 대표 변호사(Jae H. Cho, Esq)  
미국 법률사무소 경험- 변호사 60명 이상  
한국 법률사무소 경험- 변호사와 변리사 110명 이상  
NJ & NY 변호사  
비즈니스/소송

**\* Chapter 7 파산 \$1,500 \*  
(변호사비용)**



# 조재형변호사

협력변호사  
-Thomas J. Whitney, Esq.  
-Raymond Lo, Esq.(Of Counsel)

- ▣ 민사소송
- ▣ 교통티켓
- ▣ 비즈니스
- ▣ 이민
- ▣ 가정법
- ▣ 상속
- ▣ 부동산
- ▣ 파산

**609.642.4488** · 53 Paterson street., New Brunswick, NJ 08901  
· 3490 US Rt.1, Ste 7B., Princeton, NJ 08540 (이근진회계사 사무실 같은 건물)

# 뉴저지 암 전문센터 아이작 김박사

**“최적의 시스템 갖춘 암 전문센터 가까이 두고 멀리 치료 받으러 가는 한인 안타까워”**



한인 남성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전립선암에 대해 경고하면서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뉴저지 암 전문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아이작 김박사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 암 중에서도 남성암으로써 전체사망자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전립선암이라고 한다.

뉴브런스윅에 있는 로버트우드 존슨대학병원 비뇨기종양학과와의 실장 겸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아이작 김박사는 뉴저지암 전문센터의 책임 처장으로 수술을 집도하면서 남성암 증가율 일순위이자 특히 한인남성들이 더욱 고위험군에 속하는 전립선암에 대해 경고하며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뉴저지 암 전문센터를 소개했다.

미국 전역에서 전립선암 환자는 3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인 포함 아시아 환자의 발생률은 타민족에 비해 낮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오히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시아인에게 위험수치를 더욱 낮게 적용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전립선암은 특성상 암의 진행이 느려서 초기증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밝혀질 경우는 이미 전이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위험한 암이다. 그러므로 40세가 되면 전립선 상피의 분비물질을 진단하는PSA 피검사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차후 정기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로봇수술은 개복 수술보다 흉터와 출혈이 적어 하루만에 퇴원

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때문에 김박사는 그동안 천 건이 넘는 로봇수술을 해왔다.

김박사는 “미국 국립 암 센터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전국에 40개 밖에 없는데 그 중 뉴저지 암 전문센터(The Cancer Institute of NJ)가 중부 뉴저지에 있다” 며 그러나 “정보 부족으로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암 전문 센터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이곳 주민들도 뉴욕 맨하탄까지 찾는 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 안타까워 했다.

또한 “모든 암치료가 지난 5년간 외과,방사선과, 종양내과 전문의가 소견을 내며 최선의 치료방식을 모색하는 종합의료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들이 여러 의사와 만나야 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런 최적의 유익한 시스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고 한다. 한국말을 잘 하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박사의 부인 린다 김씨도 이 병원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네 자녀 육아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통역봉사를 하곤 한다.

김박사는 수술환자를 대할 때 치료와 회복을 위해 진심어린 마음으로 항상 손을 잡고 위로의 기도를 하고 있다. 연구와 수술로 바쁜 중에도 김박사의 나누는 삶은 놀라울 정도다. 찬양교회 고등부 교사로써 학생들을 위해 매주 그의 연구실에서 과학과목 교사와 신앙멘토로 봉사하고 있으며 차세대 의학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 내 의대생의 미국 전문의료 연수를 돕는 비영리 단체인 한얼 펠로우십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가난한 제3국에 의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몇 년째 의료봉사를 하고있다.

김박사는 “각 분야에 더 많은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오는7월에 있을 니카라구의 의료 선교에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고 한다.

글쓴이 : 조은미 / 교정 : 최현주







# 조은성인 데이케어

≡ 한인전문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



- 최신 시설 설비 완비
- 100% 메디케이드로 이용

Tel. 908-307-2437 [한국어]  
 Tel. 732-839-3333 [English]  
 Fax. 732-839-3332

3000 Hadley Road, South Plainfield, NJ 07080

## 척추신경전문의



Dr. Hee Nam Park D.C

**박희남**  
통증병원

- 교통사고 및 직장상해
- 척추교정 및 자세교정
- 허리 및 디스크 전문
- 어깨, 손목, 무릎, 발목, 통증 및 저림
- 두통 및 불면증
- 거북목 증후군



Fax: 732.342.7355 Office: 732.342.7575  
 85 Raritan Ave. (Rt. 27) Suite 430, Highland Park, NJ 08904

중부 뉴저지 올드브릿지, 홈델

Chong S, Kim, MD

## 김종섭

이비인후과 | 안면 성형외과

- 축농증/중이염/보청수술/갑상선 · 코 골이 수술 /편도선염/비염
- 소아 이비인후과 · 쌍거풀/코성형 · 주름살 제거/안면 미용 성형
- 보텍스 주사/눈가 주름제거 · 보청기



Chong S, Kim, MD

Board Certified 이비인후과 전문의  
 North Western University 졸업  
 Syracuse 의과 대학 졸업 /의학박사  
 Upstate University Hospital Residency

Old Bridge  
 300 Perrine #301  
 Old Bridge, NJ 08857  
 732-727-1355

Homedel  
 100 Commons Way #701  
 Homedel, NJ 07733  
 732-796-0182

# 공황장애(Panic Disorder)

공황장애라 하면 생소한 병명이지만 얼마전 “한 연예인이 이병을 알았다” 고 해서 일반에 많이 알려지게 된 병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증상을 겪게 되나 불안에서 이어지는 공황장애 처럼 당혹감을 주는 병도 없다.

대개의 환자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거나, 과도한 불안증으로 인해 정상적 생활을 할수 없게 된다. 이는 전체인구의 1-3%가 겪는다고 하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고 ,5-8%의인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불안증을 평생 한두번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는 실제로 우리 몸의 자율 신경계(우리몸은 스스로 조절하는 신경계-교감신경계와 부교감계로 구성됨)의 이상 증상으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공황의 기전에 대해서는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지만 뇌의 변연계 (limbic system)나 전두엽(prefrontal lobe)에서 어떤 Hormone norepinephrin, serotonin, GABA)이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학설이 있다.

증상으로는 현기증,심한 불안,가슴이 땀, 호흡 곤란,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죽음의 공포등을 경험하여 혹자는 죽거나 심장마비의 전구증상으로 알고 응급실이나 심장내과를 찾아가기도 한다. 그후 모든 검사를 다해 보아도 약간의 혈압상승및 빈맥등의 교감신경이상이란 진단을 받고 다시 신경과를 찾아가게 된다. 신경과에서는 6-12개월정도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처방하는데 ,이곳 미국에서는 이런류의 환자들이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약(항불안제)을 평생 복용하는 환자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안장애가 오래되는 사람에게는 우울증(Depression)이나 광장공포증이 같이 병발 하기가 쉽다.

대개 공황발작은 짧은 시간동안 지속 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일 또는 수개월 뒤에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대개 10분 이내에 증상의 최고조에 도달하고 일반적으로 20분 내지 30분 이내에 소실되며, 1시간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정신의학회에서는 심한 공포감이나 불쾌감과 함께 아래의 13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공황발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 두근거림, 심장이 마구 뛰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느낌
- 땀이 남.
- 손발이나 몸이 떨림
- 숨이 가빠지거나 막힐 듯한 느낌
- 질식할 것 같은 느낌
- 가슴 부위의 통증이나 불쾌감
- 메스꺼리거나 속이 불편함
- 어지럽고 휘청거리거나 혹은 실신할 것만 같은 느낌
- 비현실감, 혹은 이인감(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이상한 느낌, 혹은 자신이 달라진 듯한 느낌)

- 자제력을 잃거나 미쳐 버릴 것만 같아서 공포스러움
- 죽음에 대한 공포
- 이상한 감각(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
- 오한이나 몸이 화끈거리는 느낌

또 임상상 문제가 되는것은 예기불안인데,이는 공황을 경험한후에 또 공황이 오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이 지속되는것을 말하는데, 주로 이의 관리가 한방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한의학적으로 정신신경계에 작용하는 경락및 장부는 간.담.심.삼초(肝.膽.心.三焦)와 관련이 깊으며, 신경질환을 칠정(七情;희.노.우.사.비.공.경 이라고 하며 인간의 모든 감정을 포함) 의 울체나 변화로 본다.

즉 간.담.심.삼초가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과로 등의 병인이 겹쳐서 불안. 공황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혹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거나 담이 허약한 경우는 더욱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한방에는 변증(辨證)이라하여 증상을 유형별로 구별하여 치료하는데,공황장애는 네가지 즉 , 간울기체(肝鬱氣滯),심담허겁(心膽虛怯), 심비기허(心脾氣虛), 상화치성(相火熾成)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간울기체(肝鬱氣滯)는 스트레스로 인해 기의 흐름이 억압되고 저체되어서 경락이 막히고, 정신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로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계통의 약을 처방한다.히스테리와도 관계가 깊고 주로 중년의 여성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심담허겁(心膽虛怯)은 선천적으로 심장이나 담이 약한 상태에서 크게 놀라서, 정신신경계의 허약증이 나타나게된다. 깜짝깜짝 잘놀라고, 항상 불안 초조 하게된다. 가미온담탕(加味溫膽湯)류를 사용한다.

심비기허(心脾氣虛)증은 선천적으로 심장과 비장기능이 약한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거나 과로로 인하여 기혈이 부족해져서 허약해지는 신경계 허약증을 말하며, 기운이 없고 혈액도 좋지 않는등 허약한 증상을 많이나타낸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보하는 귀비탕(歸脾湯)을 사용한다.

상화치성(相火熾成)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거나,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을 상화(相火)라 하는데 상화가 정신신경계를 자극하여서 불안.공황발작을 이르킨다. 속으로 분노가 쌓여있고,자기도 모르게 사소한것에 버럭 화를 내게된다.

사간탕(瀉肝湯)을 사용한다.이와같은 요법을 중심으로 앞에서 말한 네가지 장부의 기능을 조절해주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8-12주면 환자가 안정을 찾아가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있다. 또한 인지치료 라고도 하는데 공황 장애의 원인을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정신상담 요법이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공황발작이 죽음이나 실신의 이르지 않은것을 자신이 명확히 알게되고, 안심함으로써 이 증상이 나타



# 경희 김홍순 한의원

교통사고보험 각종의료보험 여행자보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대학원(석사/박사)졸업  
 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외래교수  
 전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뉴저지, 뉴욕 한의사 면허  
 (20년 진료-10만 케이스 이상 진료 경험)

"하이랜드 오피스가  
 Costco 뒷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메타천 오피스

173 Essex Ave. Suite#102  
 Metuchen, NJ 08840

**732-729-1075**

### 포트리 오피스

1063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201-224-3000**

나도 30분정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온다는걸 알게되면 공황발작이 일어나더라도 서서히 생활에 적응해갈수있게 된다.

아울러 적절한 운동과 각종 호흡법도 신경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서 불안공황발작을 줄일수 있다. 무엇보다도 병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차차 적응해 간다면, 불안공포로부터 벗어날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는것이 힘인것이다.



경희 김홍순 한의원  
 한의학 박사 김 홍순 (201-224-3000)



## KELLER WILLIAMS<sup>®</sup>

ELITE, REALTORS



유타열(Michael)  
 직통: 732)447-5707  
 Website:www.kw.com

### 중부 뉴저지 지역 전문

Middlesex, Somerset, Union Monmouth, Mercer

\*주택매매

\*상용건물, 사업체 매매

\*주택 및 아파트 렌트

481 Memorial Parkway, Metuchen, NJ 08840  
 Office:732)549-1998 x118 Fax:732)548-3478  
 E-mail: taek10yu@hotmail.com



Edison  
 \$330,000  
 침실 5, 욕실 3, 차고 2  
 에디슨 H Mart 에서 두블럭



MAKING OUR MARK ONE CUSTOMER AT A TIME HYUNDAI



## HYUNDAI



2013 HYUNDAI Genesis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www.circlehyundai.com

Tel. 732.741.3130

641 Shrewsbury Ave., Shrewsbury, NJ 07702  
 Garden State Park Way Off Exit 109 (Red Bank Area)

# 롯시니 성악원에서 전하는 이태리 Bel-Canto 발성법

이태리 Bel-Canto 발성법에 대한 우리 커뮤니티의 큰 관심은 필자로 하여금 과거의 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였다. 유학 시절 ‘루치아노 빠바루치 인터뷰’에서 들었던 농담반 진담반의 예기였는데 한 번은 국영 RAI 음악방송에 케스팅되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태리 국민 모두는 한사람 한사람이 다 노래 발성 선생님이지요, 나도 고향(Modena)에 가면 동네 어른들과 발성 논쟁을 해야만 하는데 이기기가 영 쉽지 않거든요, 하하 ...”

낙천적인 그의 성격이기도 했겠지만 그곳 생활을 해본 성악인이라면 그 나라 전체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뿔레야 뿔 수 없이 노래에 연결되어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삶을 보게 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분들 역시 노래 발성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알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잘못 이해되곤 하는 발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예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하 소 제목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여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만 같은 그러나 실제로 발성의 본 고장 대가들로부터 거의 들을 수 없는 명제들임을 말씀 드린다.

### 1. 소리를 띄워라?

자음이 많은, 닫혀 있는 발음을 주로 하는 언어권에서 생 소리를 피하고 위 쪽을 열어 두부 공명(Head Sound)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인 것 같으나 실제로 무대위에서 상용되는 말이 아니다. 소리를 억지로 띄운다고 띄워 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실제로 그렇게 노래하는 성악 가수도 없다. 좋은 공명된 소리는 공기를 매개체로 하여 관객에게 날아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과이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일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거의 대부분의 일반 합창단과 교회 찬양대에서 이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된 접근법이며 ‘열린 발성과 마스크라’가 실제적 대안이 된다

### 2. 배로 노래 하는 것같이 노래 하라?

이 말은 원래 ‘복식 호흡’에 잘 연결된 상태로 노래 하라는 뜻인데 엉뚱하게도 극단적으로 바뀌어 배에 잔뜩 힘을 주고 배에서 목으로 밀어내듯 노래 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목이 호흡의 압박감을 받아 거꾸로 원치 않는 힘을 더욱 주게 되고 결국 닫힌 소리가 되어 버리기 쉽다. 그런데도 배에서 느껴지는 팽만감으로 인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되어 계속해서 그 힘을 증가시키게 되어 계속해서 밀어내는 발성이 되면 결국 성대를 상하게 된다. 성악은 ‘벨칸트의 문제며 호흡법과 소리 포지션의 정확한 연결’이 관건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 3. 노래 할때 후두는 무조건 내려가 있어야 한다?

음악 대학의 성악과 내에서는 초기 입학생들 사이에 종종 이 문제로 언쟁이 일어 나곤 한다 실제로 고음부를 노래 할때 후두가 따라 올라가면 목이 조여지는 소리와 더불어 닫혀진 소리가 되기가 쉽다.

그렇지만 억지로 내릴때 부터는 작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 하는데 예를 들어 탁구 공을 물속에 힘으로 눌러 담그려고 하면 공의 반발력이 공을 더욱 튀어 오르게 하듯이 후두를 억지로 내리려 들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소리가 굳게 되고 어두워 지며 딱딱한 질로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누르게 되기에 무척 조심 해야 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조금 아래쪽에 설정 되어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유동적이어야 하며 자연 스러움을 동반하고 있어야 하지 결코 모든 상황에 똑같이 완전히 눌러져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추측컨데 아마도 18세기의 유명한 벨칸토 선생 G. Mancini씨가 ‘열린 소리로 노래 하라’ 했던 그 예기가 잘못 이해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말에 해석을 달아 놓았는데 “하품 하는 입 모양과 소리의 방향이 공명판이 되는 윗 쪽 치아의 앞 부분인 경 구개를 향할때에만 자연스러운 공명이 발생하여 ‘열린 소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롯시니 성악원 (732-548-0561/732-718-8992)

ROSSINI VOCAL MUSIC ACADEMY

롯시니 성악원

Soprano 서현열 Tenor 서강석

뉴저지 유일의 전문 성악원

- 일반 대학 진학에 필요한 Music Activity.
- 전공자 ( Pre College, Music School )
- 찬양, 가곡, 뮤지컬, 팝페라와 일반곡
- 롯시니 정기 음악회 개최
- 이태리에서 활동하던 성악가 부부가 찬양과 노래하는 테크닉을 진지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5 Monmouth Ave. Edison NJ 08820 T:732.548.0561  
E-mail:gangsuk@gmail.com T:732.718.8992

# 닥치고 축구! 에디슨 축구클럽

**닥치고 축구! 에디슨 축구클럽 “건강과 함께 이민사회속 우애깊은 형제를 얻게 되는 모임”**



2013년4월 포트리에서 있었던 뉴저지 장년부팀 친선경기-에디슨 축구 클럽 웹사이트 캡처

1987년에 중부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창단해 26년전통을 자랑하는 에디슨 축구 클럽은 ‘닥치고 축구’ 라는 귀엽고 정겨운 모토로 홈페이지 방문객을 미소짓게 한다. 오랜 시간 다져졌을 이 축구인들의 모임은 녹녹치 않은 이민사회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형제애로 뭉쳐졌다. NYU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축구사랑에 흠뻑 빠진 정무혁 회장은 축구 클럽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초기 태동은 엘리자베스 교회 교인 중 축구를 사랑하는 5인이 모여 시작하게 되었다 한다. 창단멤버 중 김건규,장성학,조석태씨는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축구사랑과 회원간 인간관계의 성숙함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인근 지역에는 축구동호인 모임이 두 개 더 있지만 에디슨 축구 클럽만 유일하게 뉴저지 축구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꾸준히 모임과 시합을 해 오고 있는 클럽이다.

일요일 아침 7시반이면 회원들은 날씨를 막론하고 일주일동안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잠재워 두었던 남성의 패기를 뽐기 위해 에디슨 축구 홈구장에 모여든다. 클럽의 역사와 함께 나이가 든 에디슨 축구 클럽의 한 초기회원은 변함없는 열정을 갖고 뉴저지 축구협회 회장까지 역임했음에도 오히려 신입회원의 자세로 제일 먼저 나와 물주전자를 집어든다.

에디슨 그랜드 에비뉴에 위치한 홈구장은 창단 당시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장소다. 회원은 20~50대로 연령범위가 넓다. 40세 이상의 장년부와 그 이하청년부로 나뉘며 매주 20명을 넘는 인원이 꼬박 참석하므로 두 팀으로 나누어 멋진 훈련경기가 펼쳐진다. 일년에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다져진 훈련으로 매달 다른 클럽과 친선경기를 하며 두 달에 한번은 뉴저지 축구협회시합을 하고 또 일년에 한 두 차례는 뉴욕원정 경기도 가지고 있다. 일요일 외에 더 운동을 하기 원하는 회원은 수요일에 노스브런스윅 지역 미국리그에 참여하여 뛰고 있으며 겨울에는 실내구장에서 모인다.

1990년초 국가대표출신 문구호씨가 함께 뛰었을 당시가 이 축구클럽

의 전성기라 꼽을 수 있는데 당시 67명의 선수가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시합을 가질 정도였고 뉴욕 뉴저지 지역에 감히 상대할 팀이 없었다고 한다.뉴욕이나 북부뉴저지에는 선수경험자가 항상 있지만 에디슨 축구 클럽은 현재 순수 아마추어 모임을 유지하고 있고 팀웍과 운영면에서는 뉴저지 협회로부터 최고점수를 받고 있으며 수상경력으로 증명한다. 수차례의 수상경력 중 기억에 남는 경기는 작년 뉴저지 축구협회 회장배 풋살경기를 꼽을 있으며 장년팀은 우승을 했고 청년팀은 우승팀과의 패널티킥 결정에서 아쉽게 져서 두팀이 다 휩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아쉬웠다고 한다.

최근 창립멤버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을 때 가족과 같이 발벗고 나서 모든 장례절차를 수행하면서 클럽멤버들의 결속력을 보여 주어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으며 단지 동일 취미를 가진 단체원만이 아니라 이민사회에서 형제를 얻은 것 같은 든든한 감동을 느낀다고 한다.

글쓴이 : 조은미 / 교정 : 최현주



- SINCE 1987 -

## Edison Football Club

- 2012 NJ 한인 축구 협회 회장배 풋살대회 우승
- 2012 NJ 축구협회 이사장배 OB부 준우승
- 안영환, Red Bulls Junior 영국리그 진출 선수 배출

문의 : **201. 988. 8432**  
Edison Football Club 총무 최원준



저희팀은 즐기는 축구, 다 함께 하는 축구를 지향하는 팀입니다.  
 중부 뉴저지 지역에서 체력관리를 위해 축구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  
 처음 운동장에 나오실 때의 낯설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한번 용기를 내어 운동장에 나와보시기를 권합니다.  
 분명 그 모든 망설임과 낯설음을 이겨내시고  
 더불어 좋은 친구와 선배들을 만나게 되시며  
 건강 또한 챙길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실 것 입니다. - 단정 정무혁 -

## 닥치고 축구! love, live, soccer

축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 들을 환영합니다.  
[www.edisonfc.com](http://www.edisonfc.com)

운동시간 : 매주 일요일 8:00 - 10:00 AM  
 장소 : 1070 Grove Ave, Edison, NJ 08820

# 캐나다 원주민 선교, ‘고사리’로 새로운 비즈니스 선교 모델 개발

## 美 사업가 김진수 장로, 제2의 삶은 비즈니스 선교로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김진수 장로(58. 뉴저지세빛교회)는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전문가로 제2의 삶을 산다. 미국에서 주목받는 IT기업 ISI(Image Solutions Inc)을 지난 2010년 매각하고 캐나다 원주민을 돕기 위한 ‘고사리 사업’에 나섰다.

기업을 매각하고 떠난 캐나다 단기선교 현장에서 원주민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그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다. 이미 낮은 미국에서 사업 성공을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은 캐나다 원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게 하셨다.

###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은 원주민들, 삶부터 변화해야

김진수 장로는 비즈니스 선교라는 부르심에 흠뻑 빠져 있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을 접하게 됐다.

삶에 대한 의욕은 전혀 없이 마약과 술에 찌든 삶, 전체 인구 100만명이 캐나다 본토 자살률보다 6배가 높은 현실은 캐나다 원주민들의 꺾절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하지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김진수 장로는 비즈니스에서 그 답을 찾았다. 원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기 위한 대안이었다. 비즈니스 상품은 그 땅에서 재배되고 있는 최상급 고사리였다.

사업가로서 잔뼈가 굵은 그는 가망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7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캐나다 원주민 고사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정말 좋은 고사리인지 본인과 지인들이 먹어보고 테스트해 본 결과 충분히 시장성이 있었다. 올해까지 준비해서 내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이 김진수 장로의 목표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성공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원주민 선교를 해왔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며 “기존의 방식이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캐나다 원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을 자립에서 찾은 것이다. 김 장로는 “이들을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자립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로 이들의 삶의 터전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다. 지난 20년간 원주민 선교가 있었지만 일시적 도움만으로는 이들의 삶도 신앙도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선교의 역할

은 선교사의 몫, 교회의 몫으로 남게 된다. 비즈니스 선교가 동력이 되는 것이다. 김진수 장로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선교 철학이 분명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선교는 선교전문가가 맡아서 동역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비즈니스 선교는 선교를 목표로 삼고 비즈니스라는 도구만 사용하면서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모양새였다”며 “하지만 비즈니스는 선교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익을 내야하고 해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가장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김 장로는 “사업가는 비즈니스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선교사는 신앙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른 원주민 선교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지금의 캐나다 원주민 선교모델이 성공한다면 비즈니스와 선교가 동역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려움 딛고 성공, 제2의 삶은 나누는 삶으로 김진수 장로는 1986년 도미해 1992년 회사를 설립해 직원 500명의 규모로 성장시키고 2010년 회사를 매각하면서 사업에서는 은퇴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는 ‘성공한 아시안 기업인 50인상’, ‘언스트앤영(Ernst & Young) 기업인상’, ‘올해의 기업인상’ 등을 수상해 사업가로 성공을 이뤘다. 현재는 그레이스사선재단을 설립해 연간 20만 달러를 후원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 직원이었다가 회사를 일군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도전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 누리는 큰 부로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면서 노년을 즐기는 삶도 생각해 봤다. 하지만 그것인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김 장로는 “회사를 팔고나니 50대 중반이 됐다. 다시 뭔가를 시작해도 될 나이인데, 다시 뭔가에 올인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회사를 팔게 된 동기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을 안다.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기까지 그 간극에 무엇이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비참한 원주민의 삶에 마음이 끌렸던 이유도 사실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난하고, 자살하고 이런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며 “큰 형이 알콜중독자로 죽었고 둘째형도 자살했다. 이들이 이런 삶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회고했다.

어려운 시절, 냉정한 현실 속에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꿈을 이루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됐다. 김 장로는 “냉철하게 현실을 보면서도 희망을 갖기란 굉장히 어렵다. 현실은 아닌데 뜬구름 좇듯 무지개만 좇아간다면 현실을 잃어버릴 수 있

다” 면서도 “하지만 신앙인은 그게 가능하다” 고 힘주어 말했다.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한 신앙이다.

그는 “나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내 실수는 나의 실수로 끝난다. 하지만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며 “고난에 있을 때도 비전을 잃지 않는 것은 ‘괜찮을거야’ 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믿음, 확고한 신앙 때문이었다” 고 회고했다.

김진수 장로는 원주민 비즈니스로 새롭게 시작한 그의 사역을 통해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부르심에 따라 목표는 언제나 수정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다.

그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가 성공을 한다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했다며 자만하지 않을까 늘 조심한다.

김 장로는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겠

다는 생각을 한다” 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목표이지 일이 목표가 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경계한다” 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주어진 축복으로 마지막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고 싶다” 고 말했다.

고사리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 자체가 나의 목표는 아니” 라며 “가다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스탑” 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다하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의 메시지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 권고하던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은 동일한 울림으로 느껴졌다.

뉴스미션. 이동희 (dong423@newsmission.com)



**Grand Opening**

**시루** 맛있는 김치!  
건강한 밥상!

**SIRU Korean Restaurant**



**삼겹살 : 찞뽕불고기 : 닭갈비**  
**해물탕 : 버섯불고기**

1165 Raritan Ave. Rt 27  
Highland Park, NJ 08904  
**732-777-7812**

ICCMC 786323 DOT 2090136

## 도레미 포장이사전문

주정부  
보험  
가입업체

**건축공사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드립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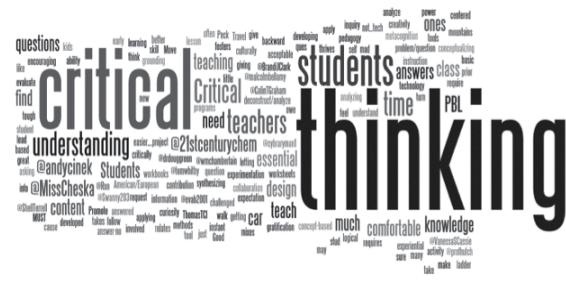
- 시내 가정이사 (한국식 포장이사 전문-대,중,소, 창고, 사무실, 가게이전, 피아노, 돌침대 운반)
- 동부지역이사 당일운반 가능 (Boston, CT, PA, DA, VA, 워싱턴디시, 메릴랜드)
- 타주이사 조지아, 텍사스, LA, 시카고, 정기노선 운행
- 귀국이사 방문 무료견적 및 포장자재 무료제공
- 창고보관 서비스 10,000sq.ft 창고보유  
각종 이삿짐, 보관용 창고 (창업용 물품보관 및 쇼핑서비스)
- 건축공사 서비스 페인트, 전기, 플러밍, 각종 보수공사
- 청소 서비스 아파트, 일반하우스, 상점, 가게
- 쓰레기 수거 및 철거서비스 가정집, 사업체, 폐업 쓰레기

(201)745-2424 / NJ 지역  
(718)640-4000 / NY 맨하탄 지역

(732)715-2424 / NJ 중남부 지역  
(516)857-2424 / 롱아일랜드 지역

**68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 비판적 사고력 - Critical Thinking 능력을 키워라



예전의 기사에 미래 인재의 중요한 가치로는 1. 창의력 2. 문제해결력 3. 효과적 표현력이라고 쓴 적이 있다. 오늘은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미국 사회는 바로 이 문제 해결력, 영어로는 Problem Solving능력을 참으로 좋아하고 중요시 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것에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기회와 솔루션을 찾아가고자 미국 사회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인재를 뽑을 때 빠지지 않는 질문 중 하나다. “과거 개인적 경험 중 본인이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여 해결한 경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사고력을 통해 솔루션을 찾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다소 결과론적인 관점의 능력을 말한다. 그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사고력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Critical Thinking능력이다. 한글로는 비판적 사고력으로 번역되어서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갖게한다. 하지만 Critical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Kritikos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는 “나누다. 쪼개다. 분류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이다.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탐구하는 서양철학적 접근법이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나 글을 쪼개어서 그 본질을 탐구해 들어가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비판적 의견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과거 학교 교육은 상당 부분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구구단 외우기부터 각 나라의 수도 외우기 등 저자는 지금도 숫자와 이름이 나오면 이를 본능적으로 외우고자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 교육이 점점 암기력의 영역을 넘어서 분석과 논리 중심의 Critical Thinking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과거는 WHAT to think의 교육 시대였다면 이제는 HOW to think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이런 Critical Thinking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점점 어린 나이로 이동되어가고 있어서 2학년만 되어도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한 후 본인의 의견을 형성하게 만드는 노력들이 시작된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생각의 틀인 Critical Thinking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여기 어떤 상황에서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 1. Ask open-ended questions – 주관식으로 물어봐라.

답이 한 가지가 아닌 질문은 아이들의 생각을 자극한다. 틀린 답이 없기 때문에 생각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 그리고 언제나 추가 질문을 유도할 수 있고 또 다른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답에 잘 경청해주고 의견을 존중해주며 반복적으로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Categorize and classify – 분류하고 구분하라.

분류하는 능력은 Critical Thinking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이해하고 특정 법칙이나 논리 발견하고 이해하며 적용해 나가는 중요한 능력 키워게 한다. 이는 쉽게 집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장난감을 분류해보자고 하면, 예를 들어, 색깔이나 모양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나이에 별로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재미있는 정도에 따라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며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3. Work in groups – 그룹으로 사고하라.

다른 비슷한 연령의 애들과 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작은 놀이를 하면 아이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에도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으며 남들은 자신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남들의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수정해 나갈 수도 있고 같이 더 나은 생각을 끌어낼 수 있다는 팀워크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같이 하면 훨씬 더 재미가 있기 마련이다.

## 4. Make decisions – 결정을 하라.

다양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정 개념을 알아내고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어진 문제를 향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이 중요하다. 그 결정이 틀린 내지는 최상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틀린 결정은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다음에 다시 결정할 상황이 되면 똑같이 결정할 지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결정이라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보다 낫다.

## 5. Find patterns – 패턴을 찾아라.

예전에 유명한 석학이 한 말 중 결국 모든 학문은 패턴을 찾는 과정이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심지어 영어이든 역사이든 어디에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일상속에서 패턴을 찾거나 연결점을 찾아보는 습관은 Critical Thinking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차로 이동하는 중에서도 창밖을 통해 많은 패턴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스토리끼리 유사 연결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패턴의 훈련이 된다.

Eye Level 이영기

973-525-3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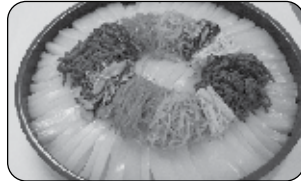
전통 한국음식의 자존심 명가의 정성을 담어드립니다

# 웹빙식 푸드명가

“ No! 조미료 ”

고급잔치음식, 밑반찬, 도시락전문, Special Sushi Roll

각종단체모임, 교회모임, 돌, 백일잔치등  
모임성격에 맞는 주문 가능함



1636 Lincoln Highway, Edison, NJ 08817

**(732)354-4217** Fax (732)354-4218

## 어떤 인쇄물이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소량 인쇄도 OK! 가격도 OK!



- 🍏 Flyer      🍏 Poster      🍏 Business Card
- 🍏 Post Card    🍏 Rock Card    🍏 Brochure
- 🍏 Gift Card    🍏 Booklet



새로운 디자인·인쇄 문화-고객을 지향합니다

**DESIGN & PRINTING**

☎ 732.469.4740

428 Lincoln Blvd. Middlesex, NJ 08846



## I AM THE KEY! ENROLLMENT STARTING NOW!



눈높이(Eye Level)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프로그램입니다.

눈높이(Eye Level)는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와  
수준에 맞추어서 배우는 원칙으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908.396.2000    www.EyeLevelBridgewater.com  
Basking Ridge | Bridgewater | Hillsborough | Warren

**Eye Level of Bridgewater**  
475 North Bridge St. Bridgewater NJ 08807

# 10학년 전 여름동안 SAT 공부해야 하는 이유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성적(GPA), SAT or ACT 성적, 그리고 Extra Activities, Community Service 등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대학입학원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9학년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해야 함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학교성적이나 Activities는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하는 점은 금방 알수있으나 SAT는 언제부터 시작 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이견이 많은 사항입니다.

SAT는 Reading, Writing, Math의 Reasoning시험과, 과목별로 치루는 SAT Subject Tests가 있습니다. Reasoning Test는 일반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구축된 문제는행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선생님의 지도로 꾸준한 연습을 한다면 시험의 유형에 친숙하게 되며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중 상위권 일 경우 10학년을 마친 여름방학동안 SAT를 집중적으로 학습 하기를 권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권 학생에게는 PSAT/ NMSQRT 시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10학년 학생들도 대체로 학교에서 PSAT시험을 치루게됩니다. 11학년은 말 할 필요도 없거나 10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PSAT 를 처음 치루게되면서 이제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는 심리적 자각을 하게되며, 10학년 일년동안 착실히 준비하게되면 11학년 PSAT 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PSAT는 National Merit Scholarship심사의 기준이되며 대학으로부터 여러가지 Offer 및 장학금 수여에 결정적 역할을하는 점은 이미 알고계실 겁니다.

둘째, NJ Governor School또는Summer Internship Program을 위해서는 좋은 PSAT 성적이 필요합니다. 뉴저지 주정부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11학년 여름방학동안 실시하는 Science & Engineering Sum-

mer Program이나 Ivy 대학의 Research Program에서는 우수한 11학년 PSAT 성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첫번째 SAT 시험을 12월이나 1월달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SAT를 치루는 달은 5월입니다. 하지만 Ivy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Early admission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11학년 12월 또는 1월시험을 첫 번째로 치루게 되므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10학년 여름방학이 SAT 준비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째, 최근들어 AP 과목성적이 더 없이 중요해 짐에따라 상위권 학생들이 11학년이 되면 보통 3-5개정도의 AP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더구나 학생이 스포츠를 하는 경우라면 11학년이 되어 Varsity Team에 합류하여 매일 운동경기를 하므로 SAT 를 따로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10학년 기간을 잘 활용해야합니다..이 모든 점을 고려 해 볼때 중 상위권 학생의 경우 10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기간부터 SAT 공부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아너스리뷰 교육센터/ IVY College Consulting 제공

## 아너스리뷰 교육센터



★★★★★  
An outstanding Program  
since 1993

### 여름학기등록중 K-12<sup>TH</sup> GRADES

SAT 영어, 수학, 과학 | 고교 대수, 기하선행 학습반  
내년도 영수 선행학습반 | 버겐과학고, AMC 준비반  
생물, 화학 선행학습반 | AP Calculus 선행학습반



### SAT, IVY college ?

Give your child a HEAD START!

Register Now

for SUMMER (7/1-8/23)

- Edison, NJ : (732)650-9292
- Plainsboro, NJ : (609)799-1212
- E. Brunswick, NJ : (732)254-3349
- Ridgewood, NJ : (201)493-9777
- Rutherford, NJ : (201)438-3808
- Tenafly, NJ : (201)567-1060
- Fort Lee, NJ : (201)947-8686
- Valencia, CA : (661)702-8833

# 대학입시: 2013년도 입학예정자에 숨겨져있는 충격적인 통계결과

대부분의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 각각 5%와 6%를 웃도는 입학률을 발표한다해도 더이상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2013년 입학 허가 통계를 들춰보면 몇몇 충격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 과도한 대기자 명단

Cleveland (OH)에 위치한 Case Western Reserve 대학에서는 약 1000명 정도의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올해5515명의 학생들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400명의 학생들이 지난해 까지 대기자 명단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략 12배가 넘는 숫자의 학생들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Emory 대학의 경우 올해1800명의 신입생을 뽑는 가운데 4000여명이 넘는 수의 학생들을 대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명단에서 133명의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하트포드에 위치한 Trinity 대학에서는 6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약 2000명의 지원자들을 대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렇듯 대기자 명단에서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만 입학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대기자 명단이 좋은 홍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생들의 자녀나, 각 대학 후원자들과 친분이 있는 자녀들을 바로 불합격 시키지 않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두되,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생의 가족들로 하여금 "거의 합격했는데"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이유때문입니다. 입학심사과정 가운데 대학들이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미국내 재정상황이 좋은 대학들의 경우에도 대기자 명단에서 학생들을 입학시킬 때가 되면 학자금보조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학자금보조가 필요한 학생들 중에서도 자질을 보면 입학시키고 싶지만 결국 학자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 조기결정을 하는 수시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메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Holy Cross대학은 2013년 신입생들의 67%를 Early Decision(수시전형)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뽑았으며, 27%의 학생만을 Regular Decision(정시전형)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미국내 명문 과학대 중 하나인 Georgia Institute of Tech 57%의 입학생을 수시전형에서, 18%의 학생만을 정시전형을 통해 뽑았습니다. Wesleyan 대학은 수시전형을 통해 41%의 학생에게 입학허가 편지를 보냈으며, 정시전형을 통해서 17%만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있는 많은 Liberal Art College들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 11월과 1월, 두 번에 나누어 입시전형을 이렇게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Wesleyan 대학의 경우 정시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수의 학생들은 총 신입생의 50% 미만인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기전형에 관한 통계가 어느정도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운동 선수들이나 VIP급의 후원자의 자녀들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의 경우 수시전형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이 최악이 아니라면, 수시전형으로 지원하여 선택권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익합니다. 단, 수시전형으로는 한 곳 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하고, 지원하는 대학이 학자금 보조에 대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들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사방에 널려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들을 대학입시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찾아보거나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더 많이 알수록 입학률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됩니다.

자료제공: 스칼라 교육 & 컨설팅  
출처 <http://m.golocalworchester.com>

## 여름학기 등록중

### 공부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스칼라 여름방학 프로그램!

대학진학 상담 / 각 학년 진학 가이드  
학자금 보조 신청

SAT Prep / Reading  
Writing / Math

여름학기개강  
New Branch  
Opening Soon!!  
Bridgewater, NJ

◆10년 이상 경험 소유한 SAT 전문 강사진 ◆전문 대학 컨설턴트의 정확한 진단 및 가이드

시험부터 대학진학까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Eunice Oh 원장 : 미국 대학진학 상담 협회 정회원



스칼라교육 & 컨설팅

1876 Rt. 27, Suite 203, Edison, NJ 08817  
www.scholarsprep.com

문의전화 (732)777-1144

# 권유제가 이끄는 아버지 앙상블

## “고이 접었던 꿈을 펼친다”



2012년 갈보리교회에서 있었던 아버지앙상블 첫 연주회. 가야금을 연주한 권유제씨(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단원들

음악가의 꿈을 고이 접고 어머니로서 살아왔던 초보 음악가의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는 한마디에서 진지한 떨림이 느껴진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뒤편게 악기를 배우는 즐거움에 흠뻑 빠진 아버지앙상블 단원들은 그동안 자녀들의 악기 수업을 뒷바라지해오다 이젠 직접 자신의 어깨에 첼로나 바이올린을 메고 교실로 향한다. 교실에는 이미 단원들보다 먼저 나와 70대의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보면 대를 놓고 의자를 정렬하는 지도교사 권유제씨가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가야금을 부전공한 권유제씨는 아버지앙상블에 십여년전부터 무보수로 진정한 의미의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앙상블 조직 초기에는 가야금 수업을 위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자신의 집을 개방해 가르치기도 했다.

남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새로운 악기에 대한 호기심을 누를 수 없었던 권유제씨는 바이올린 연주에 도전하게 되었다. 바이올린은 전공악기가 아니었고 뒤편게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권유제씨에게 포기란 없었다.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딸의 도움을 받으며 교본을 보고 독학을 했다. 점차 자신감을 얻자 이번에는 첼로 배우기에 나섰다.

또한 식지않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주위에 나누고 싶어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배우고 싶지만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 하느라 뒷전으로 미루었던 이웃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레슨비 부담없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당시 권유제씨는 학생이자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더욱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갈급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권유제씨는 여전히 무보수로 가르치고 있지만 좀 더 바른 가르침을 위해 자신은 전공자에게 보수를 지불하며 지도를 받는다.

현재 아버지 앙상블은 늘어난 인원으로 인해 2년전부터 장소를 옮겨 이스트 브런스윅 소재 갈보리 교회에서 모인다. 30~50대 남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요일에는 첼로레슨을, 목요일에는 바이올린과 가야금 레슨이 있다. 레슨 및 연습은 저녁 8시부터 두 시간동안 이어지는데 허투루 보내지 않음에도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다.

권유제씨의 두 딸 또한 권유제씨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아 장녀 권민경씨는 럿거스 주립대학교 피아노 교수로 재직중이며 차녀 윤경씨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딸들은 어머니의 무모해 보이기도 했던 계획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나 이제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지난 해 있었던 아버지 앙상블의 첫 발표일에 두 딸도 프로연주자의 실력을 애써 감추며 한 자리에서 연주를 도와주었다.

레슨비를 전혀 받지 않고 10년 가까이 봉사하는 것이 쉽지않은 일임에도 권씨는 ”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너무 기뻐서 하는 것” 이라며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그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 좀 더 훈련해서 지역을 위해 기부하는 연주를 하는 것이 최종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아버지 앙상블은 나이에 상관없이 조금하지 않은 마음자세로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이다. 뒤편은 배움인지만 실력도 들쭉날쭉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앙상블이다. 또한 선생과 학생이 한 방향을 보고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모임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나이와 금전적인 문제는 핑계라는 것을 증명한다.

글쓴이 : 조은미 / 교정 : 최현주



♥ 한국 연예인 스타일 네일 아트 전문

♥ 한국손님 환영합니다

♥ 예약 꼭 해주세요

\* 중간기술자 경험 초보자도 구합니다

415 US 9 South, Malboro, NJ 07726 732.972.3919

Obsession Hur Hair Studio

# 허 헤어살롱

펌 50% 할인 (스페셜 펌은 제외)  
Wedding, Prom party, 각종 이벤트를 위한 Make-up, Up do hair 등

**T. 732-548-4823**  
333 Lake Ave. (Rt.27) Metuchen NJ

영업시간 : Mon~Sat - 9-7:30 / Sun-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파티 메이크업 (신부화장), 올림머리(업스타일)



# Seven7미용실

일류 헤어디자이너 항상 대기!  
특별할인 **50%**

\*보조 미용사 구함\*

(에코 노래방 아래층)  
**Mon-Sat 9:00 - 7:30 / Tel. 732.287.5777**  
\*일요일은 쉽니다 2090 Rt.27 North, Edison NJ 08817

VW LIQUORS

# 에디슨 리커

각종 한국 소주 취급



Open Hours:  
Mon - Sat: 9:00 - 10:00  
Sunday: 12:00 - 8:00



561 Rt.1 Edison 남보원 식당옆  
**(732)572-9463**

# 스텔라 미용실

## Inspiration Hair Design

미용, 네일 기술자와 중간 기술자 구합니다  
\*네일 파트 렌트하실 분 구합니다.\*

Tel. (C)908.380.6381 (H)732.548.8665  
1825 US Highway 130 S., North Brunswick, NJ 08902

# 뷰티헤어 BEAUTY HAIR

## Special!



남자 헤어컷 \$15  
여자 헤어컷 \$25 up

# 50% 할인

패디큐어 \$25  
with Free 매니큐어

\* 헤어 디자이너 구합니다. \*

HOURS : Mon - Fri 9:30-7:30 / Sat 9 - 6

**Tel. 732-302-1711**  
120 Cedar Grove Ln. Somerset, NJ 08873  
찬양교회 근처 몰 (1분거리)

# 파스텔 미용실

Pastel hair salon

# 50% 할인




Mon. - Sat. 9:30-7:30 (일요일은 쉽니다)

**Tel. 732-650-0050**  
518 Old Post Rd. Edison  
(금호정 식당 옆)

# 자동차 연료 절약의 아이디어

## Keep your vehicle well maintained

자동차 부품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연비가 많이 떨어져 연료의 사용이 많아집니다. 더러운 에어 필터는 연비를 20%정도 감소 시키며, 점화 플러그가 오래되면 12%정도의 연비를 감소 시킵니다.

## Be wary of gas-saving products

미국 소비자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비절약 첨가제는 효능이 없으며, 간혹 효과가 있어도 그 효과는 아주 미세하다고 합니다. 결국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 Keep tires properly inflated

타이어 압력이 낮은 것은 안전에 위험할 뿐 아니라 연비를 6%정도 감소 시킵니다. 물론 타이어 압력이 높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의manual에 따라 적정 압력을 유지합니다.

## Don't go out of your way to save a few pennies on gas

만약 조금 싼 개스를 주입하는 것이 편리하고 가까운 거리라면 가능하나, 몇 센트를 아끼려고 몇 마일을 가서 싼 개스를 주입하는것은 낭비입니다. 만약 갤런당 5센트가 싼 곳이 있다면 50센트를 절약하는데(10갤런정도 개스를 주입한다면), 반면에 차가마일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연료가 46센트 이상이 소모됨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 Using the right octane level for your car

regular 개스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는 차에 premium개스를 넣는다고 해서 performance가 좋아지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높은 옥탄가를 사용 해야하는 차에 regular개스를 넣으면 연료의 낭비가 생깁니다. 즉 차의 manual에 따라 알맞는 옥탄가의 개스를 넣어야 합니다.

## Be sure your gas cap is tight

덜 닫혀진 개스 캡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한 해에 무려 147 만 갤런의 개스가 증발되어 버려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Drive at a constant moderate speed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장 좋은 연료 효율을 얻기위해서는 서서히 가속을 하고 브레이크도 미리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밟는 것이 좋습니다. 급가속시 연비가 11.8-20% 저하되며 속도가 60마일을 넘으면 25% 이상의 연비 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 Don't idle

1분 이상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3분 이상 공회전시 티켓을 발부하는 주도 있습니다. 공회전시의 연료 소모가 시동을 다시 거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 소모가 있습니다. 공회전 정도에 따라 최대 20% 정도의 연비 저하가 생깁니다. 또한 공회전시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가 더 많이 배출됩니다.

ASE Certified Automotive Service Consultant 이필완



# 피스카타정비

브레이크 / 에어컨서비스 / 타이어 / 튜업 / 머플러 / 오일체인지 / 정기체크업 / 서스펜션 / 전기 / 엔진 / 트랜스미션



**Phill Lee 이필완**

- ASE Certified Auto Service Consultant
- ASE Certified Auto Technician
- 미국대학 자동차학과 (AutoTech.)졸업
- 20년 실무경력
- 전, 자동차딜러 Service Advisor
- Engineering B. S.



**(P) 732-393-1007 / (C) 908-812-7933 555 New Durham Rd., Piscataway, NJ 08854 (김치하나에서 3분거리)**

# 현대 자동차 정비



필립 김

Cell Phone : 732 - 853 - 5696

Phone : 609 - 443 - 3100

Address : 1299 Rt. 130 North,  
Windsor, NJ 08561 (Gulf Gas)



경력 · 현대 정비사업소 정비반장 · 창원기능대 수료 · 1급 자동차 정비기능사

찾아오시는 길 : Rt130 South. 33번 지나서 North 방향 Gulf Gas Station

## “중부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최고의 생활안내지”

‘중부뉴저지가이드’는 뉴저지 중부지역의 모든 업소 연락처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매월 각 가정마다 배달됩니다.

아직 못 받으셨다구요?

[www.cnjguide.com](http://www.cnjguide.com) 으로

주소를 남겨주세요!

다음 달 부터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732-469-4740 / 팩스: 732-469-4741

이메일: [cnjguide@gmail.com](mailto:cnjguide@gmail.com)



## 문유미 Weichert Realtors 부동산

NJAR Circle of Excellence Award 2002-2005, 08,10,12



현명한 부동산 투자와  
내집마련의 꿈을  
해결해드립니다.

● 명문 프린스턴 지역 전문 ●



3 Manor Ridge Dr., West Windsor, NJ  
\$519,000  
방 4개 화장실 2.5개  
나무 마루, 넓은 거실, 가족실  
과수원같이 가꾼 뒷마당  
기차역, 학교, 공원 가까운 거리



3 William St., Milltown, NJ  
\$399,900  
방 4개 화장실 3개  
나무 마루, 개조된 주방, 화장실  
최신 에너지 절약형 히팅, A/C  
편리한 교통의 중심지



223 Rip Van Dam Ct.,  
Belle Mead, NJ 08502  
\$329,900  
방 2개, 화장실 2.5  
로프트와 꾸민 지하  
몽고메리 학교

[www.YoomiMoon.com](http://www.YoomiMoon.com) Cell: 609.865.3644  
E-Mail: [Yoomi@YoomiMoon.com](mailto:Yoomi@YoomiMoon.com) T: 609.799.3500 EXT:107  
53 Princeton-Hightstown Rd, Princeton Junction, NJ08850

# <위대한 개츠비> 다채로운 색상과 질감으로 피어난 명작



1992년 미국 뉴욕으로 온 ‘닉’ (토비 맥과이어)은 매 주말 호화로운 파티가 열리는 이웃집 주인 ‘개츠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관심을 갖는다. 어느 날 파티에 초대 받은 닉은 개츠비와 금세 친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촌 ‘데이지’ (캐리 멀리건)와 개츠비가 과거 연인 사이였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개츠비가 뉴욕에 대저택을 마련하고 화려한 파티를 여는 이유가 데이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5년 전 개츠비의 연인이었던 데이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개츠비를 잊고 부유한 ‘톰’ (조엘 에저튼)과 결혼한 상태다. 하지만 개츠비와 재회하면서 과거의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톰과 개츠비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다.

<위대한 개츠비>는 F.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3년 쓴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미국 상류층을 배경으로 인간의 욕망과 사랑,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당시 미국은 주가가 폭등하고 도덕이 해이해졌으며, 사람들은 향락을 통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영화는 원작에 담긴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인물의 고뇌를 충실하게 재현하려 노력했다. 또한 상류층의 풍요와 노동자, 실업자들의 빈부 차이가 극명했던 그 시절의 사회상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잡아냈다.

특히 ‘닉’ (토비 맥과이어)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뉴욕의 양면적인 모습이 흥미롭다. 매혹적인 만큼 한없이 불안했던 그들의 욕망과 꿈들이 스크린 곳곳에 담겨있다. 지독한 가난을 딛고 부를 얻은 개츠비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온전히 그 사랑에 바치려 한다. 하지만 사랑의 끝은 그의 바람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영화를 보고 나면 연출을 맡은 바즈 루어만 감독의 대표작 속 명장면을 한 번에 감상한 느낌이다. 개츠비의 저택에서 열리는 화려한 파티 장면은 <물랑루즈>(2001)의 화려한 쇼, 개츠비와 데이지의 재회 장면은 <로미오와 줄리엣>(1996)의 수족관 명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위대한 개츠비>는 여기에 3D 효과를 얹어 바즈 루어만 감독의 강렬한 이미지, 화려한 색감에 깊이의 결을 더했다. 특히 개츠비의 저택에서 열리는 호화로운 파티 장면과 개츠비와 톰이 클래식 카를 타고 달리는 장면에선 3D 효과의 질감을 만끽할 수 있다.

화려한 영상 위에 인물의 극적인 감정을 새겨 넣는 배우들의 연기도 주목할 만하다. 개츠비를 연기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풋풋하고 감성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로미오와 줄리엣>의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영화 초반, 의문에 둘러싸인 개츠비의 모습부터 다시 만난 사랑에 설레고, 고뇌하고, 끝내 파멸하는 개츠비의 낙폭이 큰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연기했다. 데이지 역의 캐리 멀리건의 매력은 기대 이상이다. 그녀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개츠비에게 흔들리면서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버릴 수 없는 데이지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공감하게 만든다. 또한 개츠비와 데이지, 그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닉을 연기한 토비 맥과이어도 안정적인 연기로 관객의 안내자 역할을 완수한다.

배우들의 연기와 더불어 음악은 <위대한 개츠비>의 감정을 전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다. 뮤지컬 팝, 재즈, 클래식, 일렉트로닉까지 장르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현대 음악과 작품의 고전적 분위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신선하게 다가온다.

한편, <위대한 개츠비>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루미에르 대극장 열린 제66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실사 극영화 최초로 개막 상영됐다. 이날 <위대한 개츠비> 상영 이후 현지에서는 “소설의 본질을 캡처한 최고의 시도”, “바즈 루어만과 공동 작가 크레이그 피어스가 F. 스콧 피츠 제럴드의 원작 소설에 리듬감을 불어넣었다.”, “강렬한 이미지와 시각 예술이 시종 빛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호평했다.

제공: <한국 최대 영화뉴스채널! 맥스뉴스>  
박유영 기자 hitomy20@maxmovie.com



## <앤젤스 셰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



매우 힘든 유년기를 보낸 ‘로비’ (폴 브래니건)는 이제 곧 아빠가 된다. 과거를 훌훌 털고 새롭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그의 편이 아니다. 얼굴에 난 흉터 때문에 제대로 된 면접조차 본 적 없는 그의 미래는 한없이 불투명하다. 두 번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에게 양심을 품고 덤벼드는 이들로 인해 그마저도 쉽지 않다.

로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다. 장인 어른은 로비에게 돈을 줄 테니 아내와 아기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떠나라고 강요한다. 이런 장인 어른의 행동을 탓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장인 어른 입장이었다면 분명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현실에 불만을 갖거나 좌절하면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고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로비에게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장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하루 빨리 직장도 구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학교 과정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그를 받아줄 직장은 어디에도 없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앞에서 로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바꿔보고 싶은 로비는 위스키에 관심이 생겨 재미 삼아 공부하다가 자신이 위스키 감별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영화일수록 캐릭터와 소소한 에피소드의 세심한 묘사가 요구된다. <앤젤스 셰어>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친 청춘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방식이 부담스럽지 않다. 물론 이 영화가 전하는 위로가 공허하게 다가오는 관객도 더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극적이기 때문이다. 로비가 해리 같은 사회 봉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위스키를 로비와 그의 친구들이 흠치는 장면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상 지점의 정 반대편에서 튀어나오는 신선한 유머와 한번 토타여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캐릭터들은 이 같은 빈틈을 쉽게 메워준다

‘블루 칼라의 시인’ 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던 과거 켄 로치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진지함의 무게를 다소 덜어낸 켄 로치 감독

은 보다 깊어진 연륜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결실을 영화 안에 담아냈다. 로비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온기를 느꼈다면 그건 감독의 연출 덕분이다. 차곡차곡 쌓인 인물들의 감정과 스토리가 결국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크게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 선에서 드라마와 잔재미를 엮어내는 솜씨 또한 제법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앤젤스 셰어>를 보고 켄 로치 감독이 연출한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인 영화라고 평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77세의 켄 로치 감독은 나이에 걸맞게 잔재주를 배제한 성공법으로 원숙한 정서를 끄집어냈다. 절제된 게 그가 리듬을 타며 딱 맞는 지점에 터져 큰 웃음을 만든다.



삶이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 영화는 직업도 미래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향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앤젤스 셰어>는 실컷 웃을 수 있는 코미디면서 동시에 눈시울을 뜨겁게 할 감동의 성장 드라마다.

캐릭터를 살린 배우들의 연기도 만족스럽다. 특히 연기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 배우 폴 브래니건이 연기한 로비는 꽤 인상적이다. 극중 인물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그는 생애 첫 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완벽히 녹인 연기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든다. 부당한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견뎌내는 삶의 태도가 그의 담담한 얼굴표정을 통해 끊임없이 상기된다. 시청 청소부로 일하다가 켄 로치 감독의 눈에 띄어 캐스팅된 게리 메이틀랜트의 연기도 압권이다. 그가 연기한 백치남 알버트를 보고 웃음을 참기란 불가능하다.

제공: <한국 최대 영화뉴스채널! 맥스뉴스>  
김규한 기자 asura78@maxmovie.com

맥스무비



# 루터란 교회를 소개합니다 (1)


## (WELS-Wisconsin Evangelical Lutheran Synod)

새싹이 나오는가 싶더니 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처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중부뉴저지에 한인 여러분들께 조금은 낯 설지만 정말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듯이 개신교의 최초교회를 엄밀히 따지자면 루터교(Lutheran)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케톨릭에서 16세기 개신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고, 그후 마틴루터로 부터 시작된 개신교회가 바로 복음주의 루터란 교회입니다. 루터란은 현재 미국내에서 3번째로 큰 교파이며, 참고로 마틴루터 (중세 종교개혁가) 와 마틴루터 킹 (흑인 인권 운동 목사)은 다른 사람이며, 루터란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가장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루터란 중에서도 특히 WELS (Wisconsin Evangelical Lutheran Synod) 는 하나님에 주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수함을 지키며 미국 내 1300 교회와 세계에 20개국 이상 선교를 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감옥 선교를 하고 있고, 군인선교, 구제선교, 성경 번역, 및 미국 내에도 높은 수준을 인정받은 337개의 초등학교와 403개의 너씨리 스쿨, 23개의 고등학교, Martin Luther College, Wisconsin Lutheran Seminary등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루터교만에 최대장점을 말한다면, 요즘처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또한 교회가 신학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성경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변질해가는 이 시대에,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성경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Our Savior's Lutheran church (한국이름 삼일육 교회)는 주일 오전 10시에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한국어 성경공부가 준비되어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루터란 교회가 과거의 한국에 했던 선교역사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ly Lutheranism follows the example of Martin Luther the great German reformer who based all his teaching on the bible reintroduced the gospel that Jesus Christ died for sins of the world. Lutheran takes their name from Martin Luther. He was a German priest who broke away from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early 1500's. Luther's writing and

teaching sparked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rough his study of the Bible, Luther helped the Christian Church rediscover the truth that God is loving and that he offers forgiveness and eternal life as a free gift because of Jesus Christ. Lutherans often refer to three "solos" (Latin for "alone") as a summary of the faith that gives them hope: Grace alone, Faith alone, Scripture alone. If you more want know about (WELS-Wisconsin Evangelical Lutheran Synod) and our Savior's Lutheran Church please contact below. 

### Concert in the Woods

### Spark & Echo

Saturday, June 1st



**FREE**

- 3:00 p.m. Soccer Camp (ages 4-12)
- 5:00 p.m. Bible Discussion
- 6:00 p.m. Barbecue
- 7:00 p.m. Concert in the Woods

**Our Savior's Lutheran Church**  
151 Milltown Road, East Brunswick  
more info 732.254.1207 한국어 문의 732.447.8056

New York husband-wife duo Spark & Echo combine folksy piano rock and art songs with beautiful vocal harmonies, epic storytelling and quirky instrumentation all while singing songs in response to Biblical text. Don't miss this special concert!

[www.SparkandEchoBand.com](http://www.SparkandEchoBand.com) / [www.SparkandEcho.org](http://www.SparkandEcho.org)



## Our Savior's Lutheran Church

### 삼일육 교회



Sunday Worship  
주일예배 영어 10:00 am

Sunday School & Adult Bible Class  
장년/청소년 성경공부 11:3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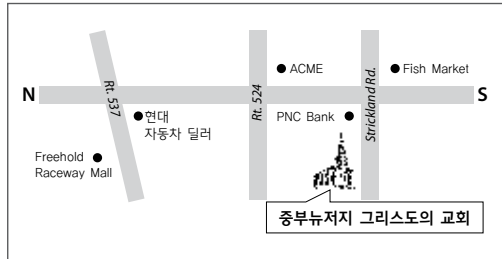
Pastor Peter Wee 위광훈 목사 (한국어) 732-447-8056 / Rev. Mark Johnston Pastor (English) 848-228-0996

151 Milltown Rd.,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254-1207

[www.oursaviorseastbrunswick.com](http://www.oursaviorseastbrunswick.com)  
[www.facebook.com/OurSaviorsLutheranChurch](http://www.facebook.com/OurSaviorsLutheranChurch)

# 중부 뉴저지 그리스도의 교회

Central New Jersey Korean Church of Christ



**담임목사: 이 태 환**

**46 Strickland Rd. Freehold, NJ 07728**

**(732) 695-2099**

[www.newjerseykoreanchurch.org](http://www.newjerseykoreanchurch.org)

성경공부 : 매주 주일 오전 10시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전 11시

아침 기도회 :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금요성경공부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부흥 사경회

주제: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강사: Dr. Ron Butterfield / Dr. Edna Butterfield / Dr. Billy Smith / Dr. Joan Smith

- 스케줄 -

6월 27일 (금) 7:30 - 8:10P.M  
 8:15 - 9:00

6월 28일 (토) 9:30 - 10:20  
 여성반  
 10:45 - 11:45

여성반 7:30 - 8:10  
 8:15 - 9:00

6월 29일 (일) 9:30 - 10:20(예배)  
 10:45 - 11:45  
 6:00 - 7:00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구체적 실천 방법  
 부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  
 아내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모자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교회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지혜  
 미래의 가족

Dr.Ron Butterfield  
 Dr.Billy Smith  
 Dr.Ron Butterfield  
 Dr.Joan Smith  
 Dr.Billy Smith  
 Dr.Edna Butterfield  
 Dr.Billy Smith  
 Dr.Ron Butterfield  
 Dr.Billy Smith  
 Dr.Ron butterfield  
 Dr.Billy Smith

## •참빛 영어학교

강사: Susan Sturgill, Monica Dudak

시간: 11:10 -12:10 (매주 토요일)

## 뉴저지 참빛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안내

중부 뉴저지 Freehold에 있는

참빛 한국학교는

미국 동중부지역 한국학교 협의회와

뉴욕 총영사관에 등록된 학교로서

경험 많고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한국인의

금지와 문화, 특별활동 등으로

재미있고 책임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 학 일 : 2013년 9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수업대상: 만 3세~15세

수업기간: 2013년 9월 14일~ 2013년 12월 14일

수업내용: 1,2,3교시 한국어, 한국문화, 음악 미술 기타 특별활동

영어학교: 한국에서 새로 이민 온 학생들에게 미국인 강사가 직접 지도함

교 재 : 재능교육 교재와 대한민국 교육 인적자원부 (뉴욕총영사관)

교재를 병행해서 사용함

특별행사: 학기중 Pennsylvania 성극공연 관람, 동요대회, 미술대회

등록장소: 중부뉴저지 그리스도의 교회

46 Strickland Road, Freehold, NJ 07728

문의전화: (732)695-2099 / (732)447-3443 교장 이태환 목사

(201) 838-4579

## 시지프의 고통과 참된 행복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경험을 쌓다 보니 이제는 이 질문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가 겪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지프는 그리스의 신들을 노엽게 한 죄로 무거운 돌을 반복적으로 산꼭대기로 굴러 올려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돌을 산꼭대기에 올리는데 성공하지만 곧 그 돌이 무거운 인하여 산 바닥으로 다시 굴러 내려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시지프는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 그 돌을 산꼭대기를 향하여 밀어 올립니다. 오직 기쁨이 있다면 돌을 밀어 올리기 위해 산 밑으로 내려오는 아주 짧은 순간의 자유입니다. 이 신화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꼭 이 시지프의 운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활의 반복과 곧 끝나버릴 잠깐의 행복들이 간간히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두고 알베르 까뮈는 “이것은 운명이다. 이 운명 앞에 우리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까뮈는 무신론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실존의 자유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시지프처럼 부질없이 살다가 가야 하는 무의미한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삶 자체

가 너무 가혹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잔인하지 않을까? 세상에는 시지프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 운명에 구애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매일 시지프의 돌을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지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또 예수 믿으라는 그 이야기로군” 하면서 금방 책장을 넘겨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글을 읽고 그냥 인생을 그럭저럭 살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인지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젊어서는 까뮈, 니체, 데카르트, 싸르트르 같은 무신론자들의 책들로 인하여 인간 실존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의 매력 때문에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아예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까뮈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숙명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무거운 돌을 올리다가 그냥 죽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길고 길었던 무신론의 터널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거듭떠도 보지 않았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은 숙명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으로 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가까이에 그분이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참인 줄 알고부터 평생 이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의 돌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쉬음을 얻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올려야 하는 그 무거운 시지프의 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산꼭대기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쉬음을 얻고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시지프의 돌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 돌을 여러분을 위해 산꼭대기로 올리시는지 경험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참된 행복을 틀림없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교회 담임목사 곽사무엘

### 은혜와 평강교회 Grace and Peace(GNP) Church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440 Church Ln. North Brunswick, NJ 08902  
Phone: 908-202-9635  
E-mail: sdkwak@gmail.com

담임목사 : 곽사무엘      주일 예배: 오후 2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 우보천리 (牛步千里)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유럽인들이 원주민 몇 사람의 인도를 받으며 정글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3일동안 쉬지 않고 길을 걷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당황한 유럽인들이 이유를 물었다.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달라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대답은 이랬다. “우리는 지난 3일동안 쉬지 않고 너무 빨리 걸어왔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따라올 시간이 필요해요.”

영혼이 따라올 시간조차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우리는 3일이 아니라 30년을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은 아닐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마저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불리웠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은 그 길 자체였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랐다. 이토록 길을 소중히 여겼던 나그네들이 언제부터 목표지향적 군사들로 변한 것일까? 개인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어야 하고, 교회는 부흥을 목표로 삼아 ‘총동원’ 되어 하는 이 철저하고 고달픈 종교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종착지만 바라보다 보니, 그 걷는

길의 중요성을 잊어버린다. 부흥이 중요하면 부흥을 이루는 방식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누군가 그랬다.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은 줄곧 천국이여야 한다고.

얼마 전 허리케인 샌디가 뉴저지 일대를 휩쓸고 갔다. 그 후, 곳곳에 아름다리 나무들이 뿌리 채 뽑혀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저렇게 큰 나무들이 어찌 저리 쉽게 뿌리 채 뽑힐까?’ 타주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분들은 다들 궁금해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가 자주 오고 땅이 비옥하다 보니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몸은 쉽게 커지지만 뿌리는 잔뿌리만 많게 되어, 조금만 강한 바람이 와도 쉽게 넘어간다. 크기와 목표만을 중시하면 깊이가 없어지기 마련이다. 잔뿌리로 이 거친 세상을 상대하려다 보니 온갖 편법과 기술만 난무하고 중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다.

“어떤 목사가 정말 괜찮은 목사일까요?” 과거 전도사 시절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되어 내게 물었다. 의사가 메스를 함부로 휘두르면 사람이 죽는데, 자신같이 모자란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괜찮은지 걱정하고 있었다. 고마웠다. 사역에 자신감으로 충만한 신학생들 사이에서 그래도 말씀을 들고 떠는 이가 있으니 다행이지 않은가. 아직 이런 질문에 답할 처지는 아니지만, 감히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

어떤 목사가 괜찮은 목사일까요? 라고 평생 끊임없이 질문하는 목사.”

쉽게 내린 정답에 무슨 깊이가 있겠는가? 모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는 그 곳이 어찌 천국이겠는가? 한국 문학계의 거장이자 평생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구상 선생은 노년이 되어야 “이제사 비로소/ 두 이레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뜬다” 고 노래했다. 쉽고 값싼 은혜만을 추구해 온 우리가 모두가 새겨 들어야 할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는 우직한 그리스도인이 그림다.

세상의 빛 세빛교회

손태환 목사



세상의 빛  
**세빛교회**  
Sebit Church

“부르시는 하나님, 찾아가는 교회”

담임목사 : 손태환  
교육전도사 : 조민호, 최진하

주일예배 : 주일 오후 2시, 주일학교 예배 : 오후 2시  
424 Garretson Road, Bridgewater, NJ 08807 / Tel.908.229.2966 / www.sebitchurch.org

# 질서가 생활이 되는 삶!

요즈음 구약성경의 민수기를 매일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민수기는 영어이름 Numbers 에서 볼수 있듯이 숫자를 세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세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숫자를 처음으로 계수하게 되는데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자,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해보니 거의 이백만명에 달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한곳에 정착한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가나안땅까지 행진을 하게되는지는 나에게 크나큰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학생들을 지도하던시절에 학생들과 산속으로 캠핑수련회를 간적이 있었는데 겨우 30명 남짓한 학생들을 데리고 몇일을 움직이는것 자체가 나에게나 학생들에게나 피차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새롭다.

모세는 어떻게 그 많은 인구를 그것도 모든 연령이 골고루 다 포함된 이스라엘을 이끌수가 있었을까? 이백만명의 한 민족이 한꺼번에 이동한 이 역사적인 사실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을것이다. 이 기적의 주인공 인도자 모세의 리더십은 여외로 간단하였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것이였다.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으로 캠프를 하도록 하였고 이동할때도 그 대형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 광경을 만약 하늘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었다면 장관이었을것이다. 이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옮겨놓은것만 보아도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낄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게된다.

우리의 삶을 흔히 광야와 같다고들 한다. 먼저 차지하면되고 먼저 먹으면 자기것이 되는곳이다.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은 광야로 이동시키셨고 그곳에서 동서남북으로 대형을 만들어 행진하도록 하셨는데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질서를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질서는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가 시작하는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혼돈스럽고 공허한 곳을 정리하시며 질서를 만드셨다. 하늘에 있어야할것, 땅에 있어야할것, 바다에 있어야 할것들을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그 질서가운데 창조된 곳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셨다.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답은 존재로 그곳에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향을 그대로 옮겨받은 인간은 질서있게 그것들을 다스리고 보존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질서가 없는곳, 곧 무질서한곳에서 질서를 만드는자가 인간들이어야 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질서를 잘 지키뿐만 아니라 질서가 삶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윤리가 사라져 너무나 무질서한 세상에 성도는 소금, 빛의 삶을 살면서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질서를 지키며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곳마다 혼탁하고 오염된 장소가 정리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야 한다.

예전에 뉴욕에서 목회할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면 뉴욕에 한 우범지대에 교회가 들어섰다. 그 근처는 당구장과 술집등이 있었고 젊은아이들의 타락의 불을 붙이는 곳이기도 하였다. 우리 교회가 그곳에 자리잡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무질서한 곳이 정리되도록 온 교회가 기도했다. 결국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기 시작하시더니 그렇게 무질서한 곳이 짝~ 정리되는 기적(?)을 보게 하셨다.

요즈음은 성도가 포함되면 질서가 깨어지는 세상이 되고있지는 않은지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이와같은 현상이 현실이 되어졌을까? 먼저는 질서가 제일 잘 잡혀있어야 할 교회안에서도 무질서가 성행하고 있기때문이다. 너무 무질서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이 마음아프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인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무질서한 추태를 보인 그곳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드셨던 장면을 기억하며 회개할수 있어야 한다.

성전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무리는 결국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삶을 버릴수가 없다. 나로인해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지 않은지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교회의 문제때문에 세상과 지역이 아파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중심으로 대형을 만드시고 그대로 이동하고 캠프하도록 지시하셨다. 성막은 이시대에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교회가 흐트러지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더럽혀짐을 비판하기보다 교회의 질서를 하나 하나 올바르게 지키고 잡아가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와 성도가 질서지킴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뉴저지 건강한 교회  
김형일 목사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1+**

[www.chanyang.org](http://www.chanyang.org)



15 Cedar Grove Lane, Somerset, NJ 08873  
 교회 732.805.4050 Fax 732.805.0403  
 어린이청소년교회 [www.cynamu.org](http://www.cynamu.org)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에리자베스 한인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Elizabeth  
[www.ekpch.org](http://www.ekpch.org)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 43:19)

담임목사: 소재신

교회 활동 목표

신령한 예배/철저한 교육/풍성한 교제  
 열심히는 전도/ 정성어린봉사

**T. 908-354-8488**  
**F. 908-354-4748**  
 700 Bayway Ave., Elizabeth, NJ 07202



초대교회의 건강함을 담고싶은 가정같은 교회  
 뉴저지 건강한 교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뉴저지 건강한 교회**  
**New Jersey Healthy Church**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미주총회

예배안내 및 GTM (Giving Tree Mission)

**주일예배: 1:00 PM (1부), 2:30 PM (2부)**  
**주일학교: 2:30 PM**  
**새벽예배: 월-금 6 AM**  
**금요찬양기도회: 매주 금요일 8:00 PM**

매일예배: [www.facebook.com](http://www.facebook.com) search: 뉴저지건강한교회  
 무료악기레슨(색소폰 & 플루트): 주일오후 5시  
 (연습시간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김형일 James H Kim

2815 Woodbridge Ave. Edison, NJ 08817  
 Tel. 646-821-3445 E-mail: [njhc704@gmail.com](mailto:njhc704@gmail.com)

더불어 살아가는  
**도라익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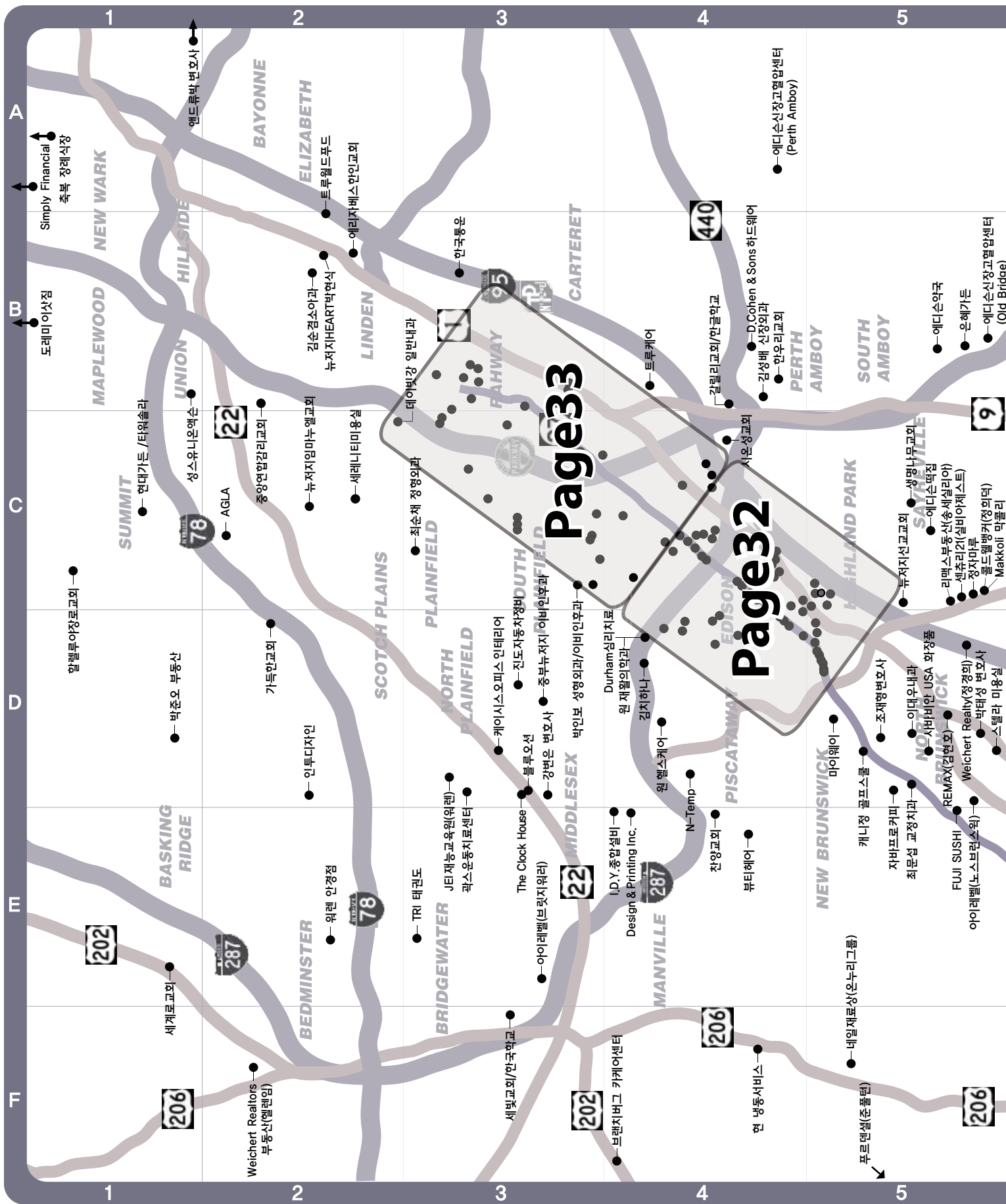
**여성상담교육센터**  
 Woman's Counseling & Education Center

➤ 여성상담/가정상담/예방교육/내적치유교실  
 ➤ 상담사역자 교실 / 치유문학 교실  
 ➤ 싱글모임: 올바른 정체감을 세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수 있도록  
 교육하며 삶을 나누는 교제시간을 갖는다.

소장 : 배임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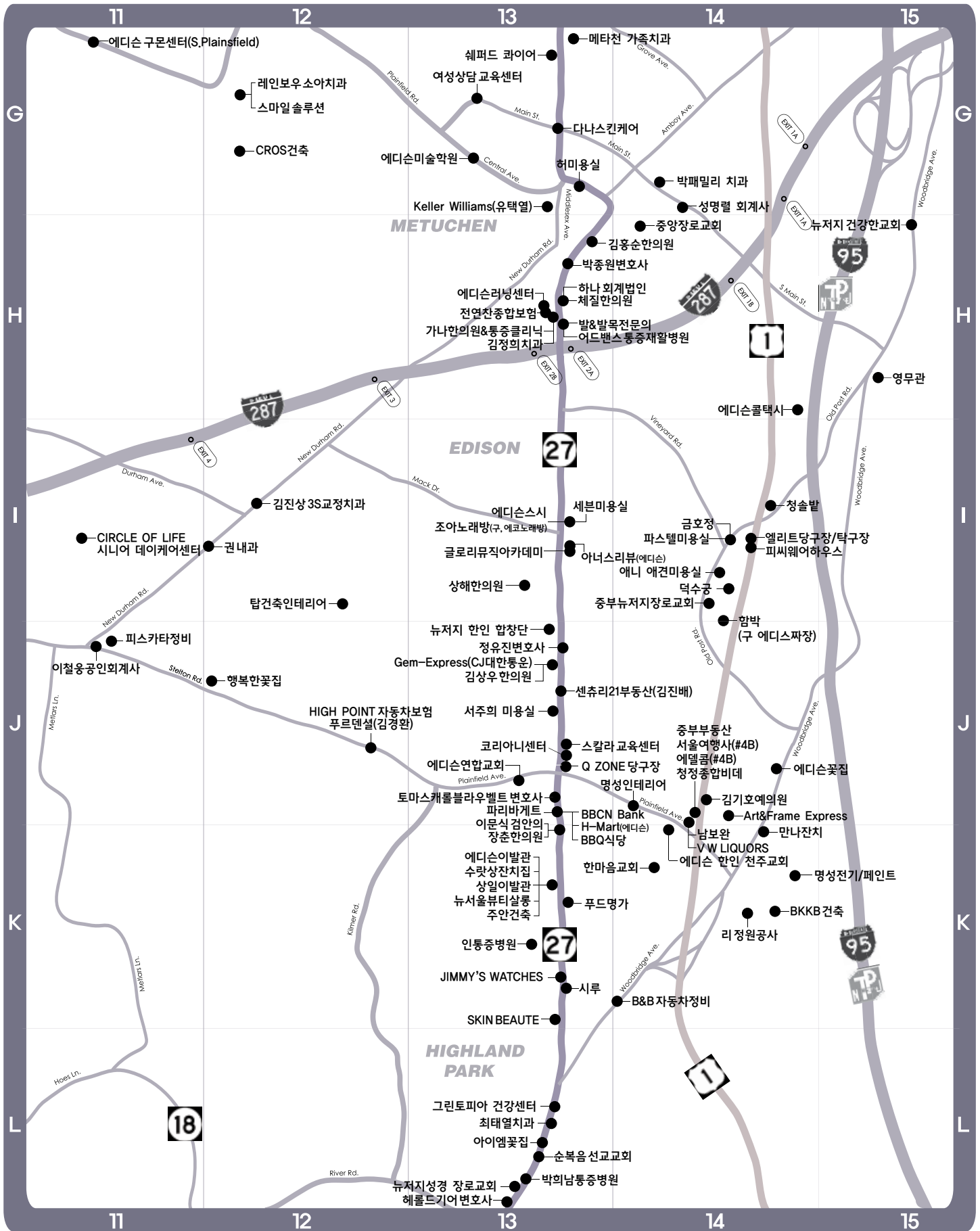
272 Main St. 2nd F1  
 Metuchen, NJ 08840  
 Tel: 732.321.0808  
 Email: [wcecbae@hanmail.net](mailto:wcecbae@hanmail.net)  
[www.womancounsel.com](http://www.womancouns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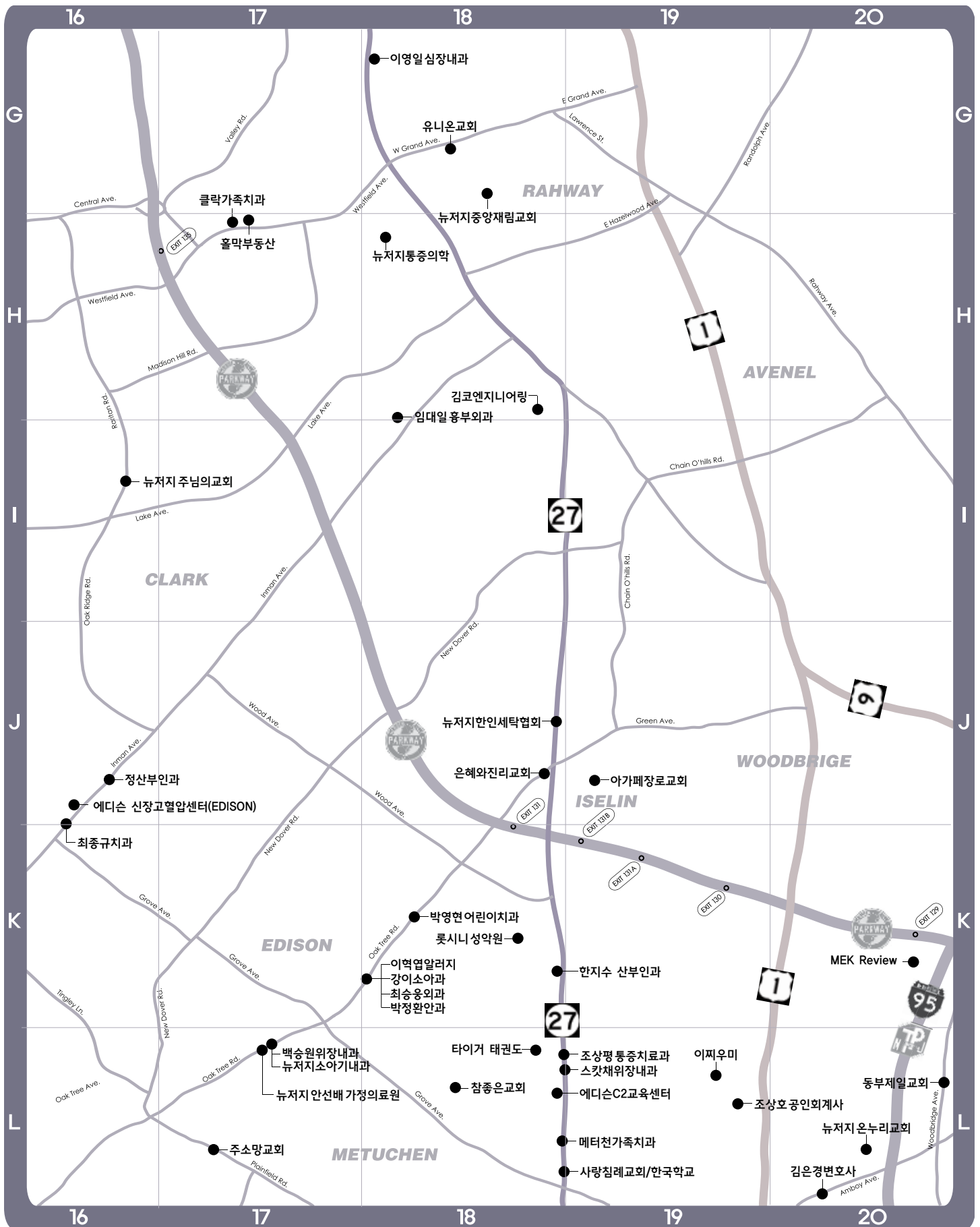












# 중부 뉴저지 업소전화번호

## 가장 효과적인 중부 뉴저지 업소 광고! 오직 중부 뉴저지만을 위한 가이드!

중부뉴저지가이드는 뉴저지 중부지역의 모든 업소정보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매월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문의: 전화 732-469-4740 / 팩스 732-469-4741  
이메일: cnjguide@gmail.com



<b>가구</b>									
케이시소오피스 인테리어	732-968-3236	D3	삼일유투터란 교회	732-254-1207	D6	세레니티 미용실,스킨케어	908-654-5757	C2	
<b>건강</b>			생명나무 교회	908-420-9124	C5	스텔라 미용실	732-422-4747	D5	
워터닥터	732-972-4510	B7	생명샘 교회	732-239-5178	E6	에디슨 이발관	732-777-9088	K13	
자바프로 커피	732-246-3232	D5	세계로 교회	908-766-9250	E1	파스텔 미용실	732-650-0050	I14	
프린스톤 건강식품	609-279-1636	F6	세빛교회/한국학교	908-229-2966	F2	허 미용실	732-548-4823	G13	
<b>건축관련</b>			순복음선교 교회	732-545-0101	L13	Skin Beaute	732-626-5045	K13	
김코엔지니어링	732-815-3242	H18	시온성 교회	732-430-5217	C4	Total Beauty 미용실	201-543-3064	F8	
들꽃조경	609-234-1838	F6	아가페장로 교회	732-283-3551	J19	Nail Time	732-972-3919	C7	
리정원공사	732-688-4373	K14	에리자베스한인 교회	732-248-7887	B2	US Nail	609-716-8881	F7	
명성전기/ 페인트	732-777-1675	K14	올네이션스 교회	609-395-7055	D7	<b>변호사</b>			
명성인테리어	732-331-4343	J14	에디슨 한인 천주교회	732-572-0977	K14	강병은 변호사	908-757-7745	D3	
바울건축	732-539-4337	C6	유니온 교회	732-396-0444	G18	김은경 변호사	732-225-3510	L20	
에디슨 전기/플러링	732-850-3654	C6	은혜와진리교회	732-439-6409	J18	박종원 변호사	201-585-0731	H13	
우월건축	732-423-7393	C6	은혜와평강교회	908-202-9635	D6	박태성 변호사	732-422-3660	D5	
주안건축	732-895-7854	K13	제일선로장로교회	732-991-4411	A9	앤드류박 변호사	212-239-3680	A1	
탑건축인테리어	732-236-2903	I12	좋은소리 교회	732-887-6878	C6	정유진 변호사	732-662-7923	J13	
현 냉동서비스	908-295-2264	F4	주소망 교회	732-205-0571	L17	조재형 변호사	732-545-9600	D5	
AAMD 종합건축	732-964-9787	C7	중부뉴저지그리스도의교회	732-695-2099	B9	토마스캐롤블라우벨트 변호사	877-676-7729	J13	
BKKB 건축	201-723-9573	K14	참빛한국학교	732-310-0022	I14	헤를트기어변호사	732-249-4600	L13	
CROS 건축	732-586-2563	G12	중부뉴저지장로 교회	908-272-1995	B2	<b>병원</b>			
I.D.Y.종합설비	201-755-8232	E4	중앙연합감리교회	732-882-3575	H14	강이 소아과	732-549-7007	K18	
<b>검도</b>			즐거운 교회	609-734-0110	F7	김순겸 소아과	908-352-8383	B2	
영무관	732-662-7944	I15	찬양 교회	732-805-4050	E4	김규수 산부인과	732-238-5400	D6	
성무관	201-387-2200	C6	참좋은 교회	908-307-7979	L18	정 산부인과	908-561-0022	J1	
<b>공인 회계사</b>			프린스톤사랑교회	609-945-2552	F7	한지수 산부인과	732-603-2122	K18	
성명렬 공인회계사	732-549-3400	H14	프린스톤연합 교회	609-799-3400	F7	권 내과	732-287-2273	I12	
이근진 공인회계사	609-452-8282	F8	프린스톤한인교회	609-921-8895	E6	김성배 신장내과	908-769-1440	B4	
이철웅 공인회계사	732-985-2232	J11	프린스톤한인장로교회	609-799-3400	E7	뉴저지 소아기내과	732-744-9090	L17	
이혜정 공인회계사	609-919-9207	E7	한마음 교회	908-930-4299	K14	데이빗 강 일반내과	908-709-4114	C2	
조상호 공인회계사	732-549-5168	L19	한우리 교회	732-952-3500	B4	백승원 위장 내과	732-744-9090	L17	
하나회계법인	732-603-8877	H13	할렐루야장로 교회	908-461-7599	C1	스티븐 김 내과	732-432-7400	D6	
<b>교회/천주교/한국학교</b>			<b>꽃집</b>			스캇 채 위장내과	732-632-9777	L19	
가득한 교회	908-464-9760	D2	아이엠 꽃집	732-354-3618	L13	이대우 내과	732-545-0202	D5	
갈릴리교회 / 한글학교	732-442-4442	B4	현대가든 / 타워슬러	973-728-4700	C1	이영일 심장 내과	732-574-0055	G18	
갈보리감리교회	732-613-4930	D6	행복한 꽃집	908-764-2896	J12	에디슨 신경과	908-757-6633	J16	
꿈이있는 교회	732-485-1100	E6	Flower Avenue 206	609-454-3671	F7	임대일 흉부내과	732-388-7999	I18	
뉴저지 건강한 교회	646-821-3445	H15	<b>노래방</b>			김중섭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732-727-1355	A6/C6	
뉴저지 믿음장로 교회	732-747-2991	A7	조아 노래방	732-248-8445	I13	김창수 성형외과	732-780-0300	B9	
뉴저지 성경장로 교회	732-887-4920	L13	<b>농장</b>			박인보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732-205-1311	C3	
뉴저지 선교 교회	732-220-9191	C5	늘푸른 농장	609-259-0029	F10	최순채 정형외과	908-561-2122	C3	
뉴저지 은누리 교회	732-661-9191	L20	원저가든	609-922-1234	E7	중부뉴저지 이비인후과	732-205-1311	D3	
뉴저지 임마누엘 교회	908-317-0691	C2	<b>당구장/탁구장</b>			가든 한의원	732-668-2228	A6	
뉴저지 주님의 교회	908-400-9768	I16	Q Zone 당구장	732-985-2110	J13	김상우 한의원	732-248-1980	J13	
뉴저지 중앙재림 교회	732-259-7474	G18	엘리트 당구장 / 탁구장	732-248-7887	I14	김홍순 한의원	732-729-1075	H13	
뉴저지 중앙 교회	732-887-5634	D6	<b>미용/이발</b>			가나 한의원	732-321-1909	H13	
뉴저지 한인 교회	732-332-1101	A6	7 미용실	732-287-5777	I13	장춘 한의원	732-287-8881	J13	
동부제일 교회	732-709-3114	L20	다나 스킨케어	732-906-8555	G13	체질 한의원	732-548-2222	H13	
사랑침례 교회/한국학교	732-548-1898	L18	뷰티 헤어	732-302-1711	E4	상해 한의원	732-248-3700	I13	
			상일 이발관	732-572-9449	K13	프린스톤한의원	732-754-0392	F7	
			서주희미용실	732-205-0101	J13	김진상3S교정치과	732-287-1223	I12	
						김정희치과	732-548-2255	H13	
						뉴이미지치과	732-432-8388	D6	
						레인보우 소아치과	732-452-0100	G12	

메터천 가족치과	732-549-2099	C18
민 치과	732-566-4200	B6
박영현 어린이 치과	732-906-2001	K18
박패밀리 치과	732-548-1218	G14
오민정치과	609-924-4421	F7
최문섭 교정치과	732-846-6262	D5
최종규 치과	609-754-9322	J16
최태열치과	732-572-2411	L13
클락가족치과	732-669-0800	H17
프린스턴 패밀리 치과	609-779-0500	E7
프린스톤 프리미엄 치과	609-936-0040	F7
프린스톤 소아치과	609-924-0404	
Advanced Center for Orthodontics		
	732-308-0022	C8
Gentle Dental Provider	646-703-2848	B10
KIDSFIRST 소아치과	732-970-8184	B6
팍스 운동치료센터	732-356-5507	D3
뉴저지 안선배 가정의료원	732-321-5100	L17
뉴저지 HEART 박헌식	908-354-8900	B2
뉴저지 통증의학	732-372-0222	H18
박정환 안과	908-822-0070	K18
박희남 통증병원	732-342-7575	L13
발&발목 전문의(공석일)	732-635-0400	H13
스마일 솔루션	732-516-1999	G12
이문식 검안의	732-393-1210	J13
어드밴스 통증재활병원	732-516-1060	H13
에디슨 신장 고혈압센터		
• Perth Amboy	908-769-5206	A4
• Edison	908-769-1440	J16
Old Bridge	908-769-1410	B5
원 재활의학과	908-412-0900	C4
원 헬스케어	732-981-1111	D4
이혁엽 알라지과(에디슨)	732-767-0955	K18
인 통증병원	732-287-1990	K13
조상평 통증치료과	732-494-9111	L19
최승웅 외과	908-769-1020	K18
트루케어	908-769-1445(한)	B4
Durham 심리치료	908-412-0902	C4

**보험**

전연찬 종합 보험	732-767-6601	H13
푸르덴셜(김경환)	732-491-4724	J12
푸르덴셜(준폴턴)	908-874-3400	F5
High Point 자동차보험	732-491-4724	J12
AGLA(문옥주)	201-699-8970	C2

**부동산**

REMAX(김현호)	908-227-1937	D5
REMAX(세실리아 송)	908-705-3506	C5
Keller Williams(유탭열)	732-549-1998	G13
Weichert Realtors 애니전부동산	908-890-1789	F7
박준오 부동산	908-591-0094	D1
수지염부동산	732-462-4242	C7
센츄리21 부동산 (김진배)	732-682-5137	J13
센트럴21 부동산(황은진)	732-757-8803	C6
문유미 부동산	609-865-3644	F7
오수찬 부동산	732-536-3636	C7
ERA Realty (석동성)	732-939-7388	B9
조정애 부동산	732-343-2501	E6
중부 부동산	732-777-7979	J14
Weichert Realtors 부동산(헬렌임)	908-507-2428	F2
Weichert Realtors 부동산(정경희)	732-247-7800	D5
골드웰 뱅커(정희덕)	732-673-6322	C5
클라라 (Clara) 부동산	908-330-8134	C6
홀막부동산	908-232-0066	H17

**선물 백화점**

헬로키티 (H+마트내)	201-599-6633	I14
--------------	--------------	-----

**시계**

Jimmy' s Watches	732-985-6363	K13
The Clock House	732-968-1141	D3

**식당**

김치하나	908-755-0777	D4
금호정	732-650-1588	I14
남보완	732-985-1333	J14

덕수궁	732-248-1775	I14
마이웨이	732-545-5757	D5
스시 하우스	732-907-0018	C6
시루	732-777-7812	K13
에디슨 스시	732-650-0007	I13
함박 (쿠 에디슨 짜장)	732-572-0600	J14
이찌우미	732-906-2370	L19
정자마루	732-698-1113	C5
청솔밭	732-287-1234	I14
코너치킨 산수갑산(H+마트내)	732-985-4300	I14
훈스시	609-269-5800	F8
Makkoli (막콜리)	732-967-8900	C5
FuJi Sushi	732-246-8588	E5

**식품/간치점**

만나잔치	732-777-0008	K14
트루월드푸드	908-351-9090	B2
푸드명가	732-354-4217	K13
H마트(에디슨)	732-339-1530	I14
Route 1 Farm Market	609-771-4341	F8
수랏산 잔치집	732-287-6719	K13
에디슨떡집	732-238-1614	C5

**안경점**

워렌 안경점	908-546-7000	E2
--------	--------------	----

**양로/요양원**

은혜가든	732-672-1684	B5
싸클 오브 라이프	908-307-2437	I11
영 앳 하트 데이케어 센터	732-578-1888	A7
은빛 요양원	908-565-6990	A7

**약국**

그린토피아 건강센터	732-640-2009	L13
에디슨약국	732-721-3600	B5

**여행사**

서울여행사	732-339-0033	J14
-------	--------------	-----

**예의원**

김기호 예의원	888-424-0404	J14
---------	--------------	-----

**은행/모기지 융자**

BBCN 은행	732-839-0640	J13
Simply Financial	201-464-1001	A1
애플 SBA 융자	732-275-1992	A6

**이삿짐/운송/관세사**

도레미이삿짐	201-937-4594	B1
CJ 대한통운	908-202-4525	J13
한국통운	908-862-2002	B3
한진택배(H+mart 내)	732-339-1212	J13

**인쇄소/디자이너**

Design & Printing, Inc	732-469-4740	D4
인투디자이너	908-382-6639	D2

**자동차 정비**

진도 자동차 정비	908-755-9292	D3
브랜치버그 카 케어센터	908-526-2420	F4
성스 유니온 엑스	908-687-6464	B1
피스카타 정비	732-393-1007	J11
B&B 자동차 정비	732-985-9500	K14
현대 Auto Repair	609-443-3100	E9

**장례식장**

측복 장례식장	205-602-1911	A1
---------	--------------	----

**제과점**

두레주르 (H+마트 내)	732-985-4588	I14
파리바게트	732-248-0044	J13

**철물점**

D. Cohen & Sons 하드웨어	732-826-2359	B4
----------------------	--------------	----

**컴퓨터 판매 /수리**

피씨 웨어하우스	732-287-0734	I14
----------	--------------	-----

**콜택시**

에디슨콜 택시	732-448-9000	H14
이자를 택시	732-485-1131	D6

**학교/학원**

총회신학대학	732-688-0588	D6
글로벌뮤직아카데미	732-287-6677	I13
로시니 성악원	732-548-0561	K18
브런스워 뮤직학원	732-238-2828	D6
아너스리뷰 교육센터		
• 프린스톤 정션센터	609-799-1212	F7
• 이스트브런스워	732-254-3349	D6
• 모겐빌	732-851-4321	C7
• 에디슨	732-650-9292	I13
에디슨 구몬센터		
• 에버딘	732-290-2334	B6
• S. Plainfield	908-753-0111	G11
에디슨 미술학원	908-380-0984	G13
에디슨 C2 교육센터	732-516-9700	L19
에디슨 러닝센터	732-744-0630	H13
아이레벨(브릿지 워러)	908-396-2000	E3
아이레벨(노스브런스워)	732-594-1183	D5
씨씨비 프린스톤	609-924-1888	F6
스칼라 교육센터	732-777-1144	J13
정 바이올린	732-687-9206	B9
코리아니센터학원	732-692-8130	J13
JET 재능교육원(워렌)	908-791-1998	D3
JET 재능교육원(프린스톤)	609-897-1072	F7
JET 재능교육원(이스트브롱스)	732-688-0588	D6
SB 종합교육원	732-688-0588	D6
MEK Review	855-346-1410	K20

**협회/센터**

뉴저지 한인 합창단	908-239-0366	J13
뉴저지한인세탁협회	732-283-5135	J18
여성상담교육센터	732-321-0808	G13
중부뉴저지한인회	732-485-2042	D6

**스포츠**

캐니정골프스쿨	201-887-6876	D5
빙커힐 골프코스	908-359-6335	F6
FIELD SPORTS COMPLEX	732-651-7500	C6
TRI 태권도	908-704-9977	E3
타이거 태권도	732-906-9077	L18

**기타**

Art& Frame Express	609-490-1200	E8
	732-777-0887	J14
네일재료상 (온누리 그룹)	732-614-8019	F5
V W liquor(에디슨 리커)	732-572-5127	J14
백양 쌍방울(H+마트 내)	732-985-2623	I14
밀레오레(H+마트 내)	732-985-1946	I14
사바비안 USA 화장품	732-545-0021	D5
쉐퍼드콰이어	917-330-8557	G13
아모레 (화장품, H+마트 내)	732-985-6200	I14
애니 애견미용실	732-287-8400	I14
로렌스빌 렉서스	888-240-7526	F8
Zoa Plants	732-325-0359	D5
정관장 홍삼	732-339-1212	J13
N-TEMP	732-850-6133	E4
현대(Circle) 자동차	732-741-3139	A8

중부뉴저지 업소 전화번호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업소정보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Tel: 732.469.4740  
Fax: 732.469.4741  
Email: cnjguide@gmail.com

# Jersey Shore

## ADULT DAY HEALTH CARE CENTER



##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십시오!

Jersey Shore 건강 관리센터는 성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및 회복을 돕기 위하여 하루 5시간씩 낮시간동안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영양원이 아닌 개인의 생활 거주지를 가지신 분들 중 건강관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장소입니다. 라이선스를 지닌 전문가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회복을 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거나 더욱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메디칼 케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건강 관리센터 비용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커버됩니다.  
메디케이드가 없는 분들은 개인이 부담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은 특별한 관리나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체 또는 정신질환자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언어 소지 직원들
  - 건강관리 전문 책임자
  - 물리치료사
  - 직장 상해자 전문 물리치료사
  - 언어장애 치료
    - 약물중독 치료
    - 당뇨병 치료
- 보행장애 치료
  - 치아 검사 및 관리
  - Door to Door 차량서비스
  - 정부 소셜워크 서비스
  - 시력 검사
  - 체중 조절 및 관리
  - 운동습관 개발 및 관리
- 어가활동에 대한 조언
  -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 제공
  - 영양분 섭취 및 관리에 대한 상담
  - 오락 프로그램 제공
  - 예배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이발 및 미용 서비스 제공

**Tel. 732.575.3476**

600 Main Street Asbury Park, NJ 07712



# 각종 행사 안내문 및 초대장은 디자인 & 프린팅과 함께 하세요!



 Design & Printing, Inc.

Tel: 732 469 4740

428 Lincoln Blvd. Middlesex, NJ 08846

Sticker  is

personalizing your device  
with a new look

[www.stickeris.com](http://www.stickeris.com)



- Mobile Phone
- Tablet
- Beats Headphones

Sticker  is

는 케이스가 아닌 부착방식의 디자인 스티커 입니다.



세상의 빛  
**세빛교회**  
 Sebit Church

부르시는 하나님,  
 찾아가는 교회

Tel. 908.229.2966  
 424 Garretson Road. Bridgewater NJ 08807

주일예배 : 2PM, 주일학교예배 : 2PM  
 담임목사 : 손태환

# K 부동산 팀



다섯명의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립니다!



**Office**  
 609. 987. 8889

**Direct**  
 609. 851. 4460 (영배)  
 609. 651. 0981 (헬레나)

<b>우수 학군 프린스턴 전문</b> - Princeton - West Windsor/ Plainsboro - Montgomery - Lawrenceville	<b>주택매매</b> - 상용건물 및 사업체 매매 - 주택 및 아파트 렌트 - 투자, 수질 오염 상담
--	---

100 Canal Pointe Blvd., Suite 120 Princeton, NJ 08540  
 E-Mail : kteam@krealtyteam.com Website: www.Krealtyteam.com

## 가장 효과적인 중부 뉴저지 업소광고! 오직 중부 뉴저지만을 위한 가이드!

'중부 뉴저지 가이드' 는  
 뉴저지 중부 지역의 모든 업소 연락처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  
 매월 각 한인 가정에 무료로 배달됩니다.

The central New Jersey guide is distributed monthly  
 to all Korean families in central New Jersey.



www.cnjguide.com



중부 뉴저지 가이드

**www.cnjguide.com**  
 으로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음 달 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Tel.732.469.4740 Fax.732.469.4741  
**cnjguide@gmail.com**